

NO!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특별지자체 전환을 절대 반대합니다



YES!

인천시민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자신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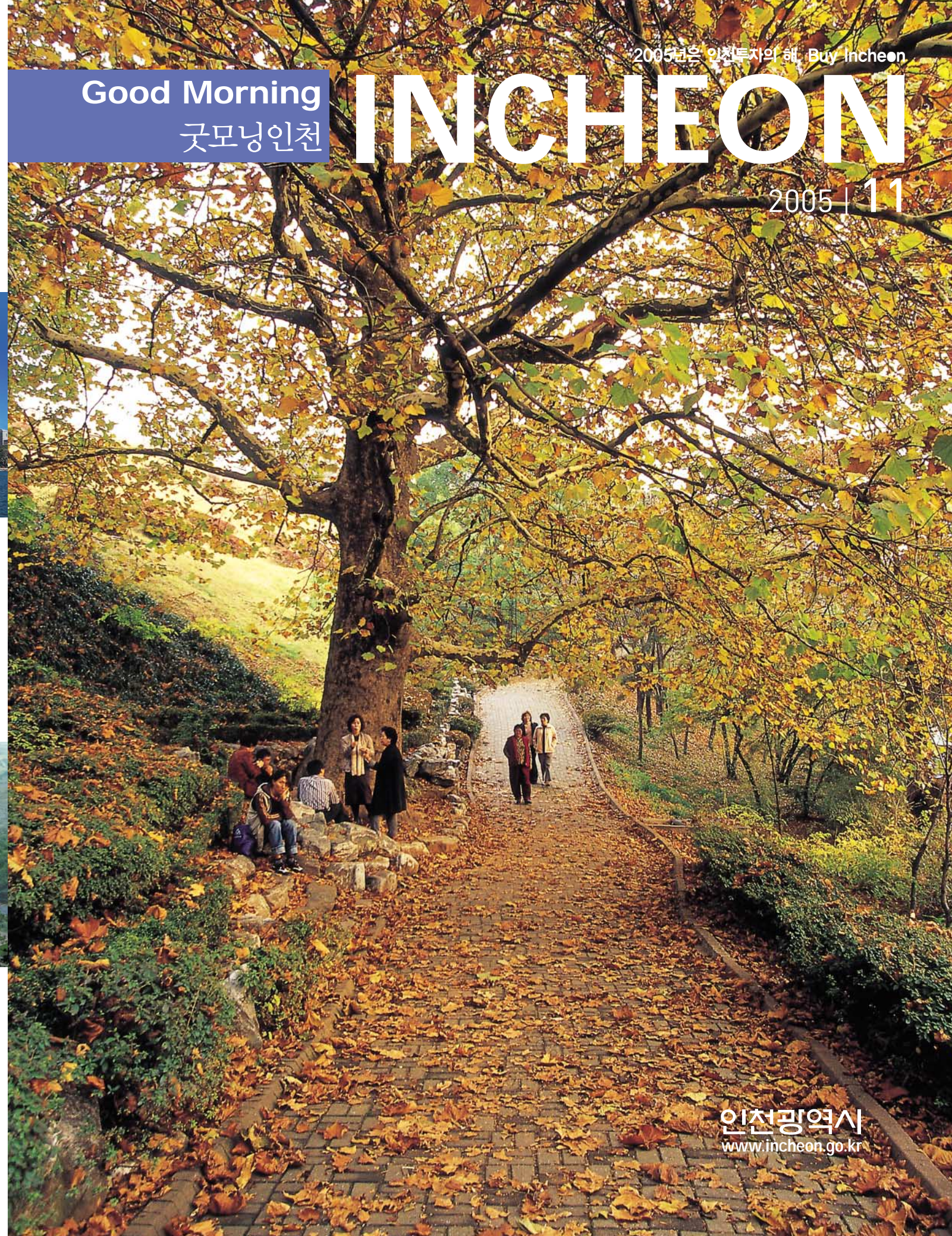


Good Morning
굿모닝인천

INCHEON

2005년은 인천투자자의 해 Buy Incheon

2005 | 11



두루미, 스카프에서 노닐다



대상·인천시의 상징물인 마크와 시조(市鳥)인 두루미를 넥타이와 스카프에 응용한 패턴



금상·인천국제공항 기념품 패키지세트

우리는 '인천의 비상(Souring of Incheon)'이라는 주제로 인천국제 디자인공모전을 개최했다. 지난 3월 부터 응모된 총 320개의 작품을 심사해 계양구에 거주하는 전주홍 (30·아트인 소속)의 '인천광역시 상징물을 응용한 넥타이·스카프 디자인'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상은 일본의 Takehiro와 영국 국 적의 Ji-Hye Park의 공동작품인 'Log Incheon with lensln', 목원 대학교 이승현, 성락준의 '인천국제 공항 기념품 패키지세트' 그리고 상 지대학교 모경준의 '신라면 광고포 스타' 등 세 작품이다.

2005인천디자인페어의 일환으로 열린 총 상금 3100만원(대상 1천만 원, 금상 3백만원 등)의 이번 공모 전은 해외에서 14개국 57개 작품, 국내에서 37개 대학 및 일반디자인 263개 작품이 접수되는 등 양 적으로나 질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는 평이다.

입상자 명단은 공모전 홈페이지 (www.indef.org)에 게재돼 있고 선 정된 출품물 및 수상작은 10월31일 부터 11월3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 술회관 전시장에서 전시된다.



금상·신라면 광고포스터



금상·'Log Incheon with lensln'



08



12



36

02窓 2005 | 인천국제디자인공모전

04멀티브리핑 | 송도국제도시의 7가지 풍경

08인천 가을에 빠지다 | 산사(山寺) 찾집 기행

12가을 속 문화기행 | 예술 혼이 숨쉬는 강화도 아플리에

16이달의 공연 | 이루마의 겨울이야기 외

202005 주안미디어문화축제 | 미디어아트 전시 溫 & On

21인천문화재단 특별기획 | 21세기로 열린 창 인천미술展

22쟁점 | 경제자유구역청 전환 문제

24굿인천 굿뉴스 | 제2외곽순환도로 ·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외

27의정소식 | 행정사무감사 · 예산안심사 관련 의원연찬회 개최 외

28군·구 풍향계 | 동구 국내최초 달동네 박물관 개관 외

29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소식 | 한·중 물류센터 양국에 설립 외

30인천의 물류이야기 | ⑪ 6시그마

31Youthzine | 기타큐슈 청소년국제교류

32굿모닝 리포트 | 2014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경과

34세·상·만·사·仁·川·萬·寫 | 자장면도 순서가 있다

35인천사랑 | 미국 캘리포니아 임성숙 씨

36염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⑩ 창영초 교사·영화초 본관동·기독교사회복지관

40인천에서 즐겁게 잘 사는 법 | 우리시의 친환경농산물

44앗, 나도 이런 일 있었는데 | 다단계 판매사기

45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 노안 교정수술

46만화로 보는 인천의 최초·최고, 유일시리즈 | ⑪ 최초의 근대적 우편업무

48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스물세 번째 사람 | 서 희 씨

52독자마당 | '영화' & '짜깁'

55Info Box | 2005인천국제디자인페어 열립니다 외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됩니다. 구독문의 (032-440-2070) 광고문의 (032-440-2042, 2071)



발행처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 (구월동 1138번지)) 발행일 2005년 11월 1일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62800000-84900-42-81 인쇄 인천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굿모닝인천〉은 <http://www.incheon.go.kr>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지설명 _ 자유공원의 晩秋

삶터 · 일터 그리고 꿈터

갯벌을 메워 송도국제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한지 어언 10년. '아직도 한창 땅을 메우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지난 3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고 기업체 연구동에서는 첨단 과학을 이용한 연구가 한창이다. 송도국제도시. 이곳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Scene 1 갯벌타워를 찾는 방문객

지난 10월 14일. 송도 갯벌타워에는 외국인의 발길이 이어졌다. 인천 시민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시를 찾은 자매도시의 초청 인사들이 이곳을 찾은 것이다. 이처럼 갯벌센터에 귀빈들의 발걸음이 잦다. 갯벌타워 19층과 21층에 '인천경제자유구역 비전 21'(IFEZ VISION21)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는 신흥보관은 전체 모형전시물, 전망대, PDA 정보검색기, 멀티미디어 영상관, 각종 홍보패널 등이 설치돼 있는 입체적인 홍보전시관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제일 먼저 찾는 곳이다. 그동안 미국, 영국, 중국, 호주 등 여러나라의 투자자들이 다녀가는가 하면 지난 10월 11일에는 서울에서 열린 제8차 세계 화상대회(華商大會)에 참가한 100여명의 화교들이 방문해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투자를 타진하기도 했다.



| 갯벌타워 |



지난해 7월 9일 준공된 갯벌타워는 '진주를 캐는 곳(Tower to get pearl)'이란 또 다른 의미를 지닌 21층짜리 벤처빌딩이다. 갯벌타워에는 전자·정보기기

산업, 생물산업, 메카트로닉스(정밀기계) 산업, 신소재산업, IT산업 등 약 60여개의 첨단기업이 둥지를 틀게 된다.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는 이곳에 입주하는 업체에게 해외 첨단 기업과의 공동연구, 해외 시장 개척, 벤처펀드 알선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갯벌타워 인근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생산공정기술본부, 신소재본부, 생산기반기술본부를 포함한 '인천연구센터'가 있고 인천지역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인천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도 가까이 있어 벤처 산업의 요람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Scene 2 컨벤션센터 건설현장

송도국제도시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1공구에는 64층짜리 주상복합건물로 지어지는 포스코 The#1st city가 눈에 띄고 그 옆에는 송도컨벤션센터가 자리를 잡았다. NSC(미국 게임사와 포스코의 합작법인)가 짓고 있는 송도컨벤션센터는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갖고 터파기와 파일공사를 끝냈고 지금은 철근과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 중인데 철근 공사도 올해 안으로 끝날 예정이라는 것이 포스코건설 황귀남 현장 소장의 말이다. 차질 없는 공사 진행을 위해 컨벤션센터의 현장은 다른 곳보다 아침이 일찍 시작된다. 해를 쫓아 출근한 현장사람들은 안전을 위한 체조로 몸 풀기를 시작해 해가 떨어질 때까지 광음을 울리며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컨벤션센터 |

송도 컨벤션센터는 동북아시아 미래 사업의 중심지가 될 송도 신도시의 중심부에 위치한다. 중앙공원과 인접한 4만7천여평의 대지에 자리를 잡고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2천653평의 건물에 국제회의, 전시회, 연회, 총회 등 각종 행사를 수용할 수 있는 선진화된 시설을 갖춘 건물로 지어진다. 독창적인 외관과 내부에는 3천여 평의 전시공간과 최대 1천5백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볼룸 그리고 최대 2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26실의 미팅룸 등을 갖춰 세계적인 행사나 이벤트를 유치하게 될 것이다.



#Scene 3 미래로 달리는 지하철 건설현장

연수동에서 송도국제도시를 이어주는 다리를 넘다보면 왼편으로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사업 1·2공구 토목공사'라는 간판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연수구 동막역에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6.54km 구간의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공사다. 송도연장구간은 모두 6개 역을 갖추고 2009년 10월 개통될 예정이다. 지금 송도 현장에서는 토목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곧 굴착공사에 착수할 것이고 내년에는 정거장 기초 콘크리트 타설이 시작되면 정거장의 모습이 차츰 갖춰져 송도를 관통할 지하철을 실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지하철 |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송도국제도시 구간에는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고품격의 정거장 6곳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송도 1정거장은 관문 이미지를, 2정거장은 휴먼도시로서의 현대적인 느낌을, 송도 3정거장은 하이테크 공간을 연출하고, 송도 4정거장은 세계를 연결하는 중심성을 표현하고 송도 5정거장은 신비한 빛의 정원을 표현한다. 그리고 송도 6정거장은 그림으로 진취적인 항해를 연출 한다는 계획이다.



#Scene 4 문화가 꽃피는 공간

8월 25일, 모델하우스에서 은은한 선율이 울려 퍼졌다.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 합작법인) NSC가 송도마케팅센터에서 마련한 'NSC와 함께하는 작은음악회'에서다. 10월에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열었다. 27일에 김동규 교수를 초청한 작은 음악회를 열어 가곡, 오페라, 영화주제가 등을 감상했다.



| 송도마케팅센터 문화행사 |

NSC는 송도마케팅센터에서 문화행사를 열어 인천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업무단지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달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제와 형식을 달리한 관객 참여형 열린음악회'를 메인 프로그램으로 하지만 비단 음악회 뿐 아니다. '어린이 영어웅변대회'를 비롯해 인천소재 대학 건축, 토목, 환경관련학과와 '졸업작품 전시회', 'NSC 초청 건축인의 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열어 지역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다가간다.



#Scene 5 바이오 신약을 만드는 연구소



송도국제도시 거의 끝자락에 웅장하고 현대식의 건물이 자리잡고 있다. 한미 합작회사로 바이오신약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주)셀트리온(대표 서정진)이다. 지난해부터 송도 땅에서 근무를 시작해 지난 7월 25일 준공기념식을 가진 셀트리온은 지난 6월 세계적인 다국적 제약회사인 미국의 BMS(Bristol-Myers Squibb)사와 첨단 생명공학기술의 산물인 바이오신약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지금 이곳에서는 2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BMS사가 최근 개발한 관절염 치료용 바이오 신약 아바타셉트(Abatacept)를 생산하기 위한 테스트가 한창이다. 셀트리온은 BMS가 앞으로 개발할 신약도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대비해 생산시설을 세계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새로운 공장을 짓는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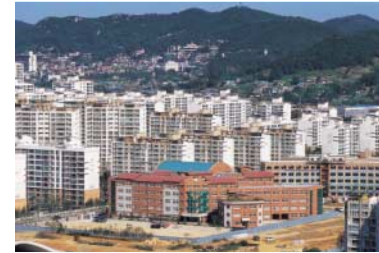
| 국제업무단지 기업체 |

5만평에 이르는 국제업무단지에는 기업용 지에 전자·정보기기, 생물산업, 신소재, 정밀기계, 메카트로닉스 분야의 34개 첨단 기업연구소가 유치되었다. 통신용장비를 생산하는 벽진시스템의 연구소와 한국의과학연구소, 아이씨텍, 대진금속의 R&D센터, 엠파인, 에스엠씨연구소 등은 이미 완공돼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등은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Scene 6 새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

신송중학교(교장·황오룡) 1학년에 다니는 정윤묵 군. 남동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지난 3월 송도국제도시에 신송중학교가 개교하면서 첫 입학생이 되었다. 처음엔 신설학교라 불편한 게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신송중학교가 썩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2학기 중반에 접어든 지금은 어느 누구보다 애교심이 강한 학생이 되었다.



| 학교 |

송도신도시에는 현재 신송고등학교를 비롯해 신송중학교와 먼우금초등학교가 개교해 학생들이 향학을 불태우고 있다. 먼우금초등학교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30학급에 1천22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고 신송중학교에서는 1학년과 2학년에 8개 학급, 213명이 공부하고 있다. 또 신송고등학교는 1학년만 12반에 374명이 재학 중이다. 국립대로 전환될 인천대학교를 비롯해 인하대학교 산업협력관 등도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경제특구, 국제도시라는 면모에 걸맞게 외국인 자녀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제학교가 들어올 계획이다. NSC는 하버드어드바이저리그룹(HAG)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8월까지 교육과 운영, 학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Scene 7 새 아파트에서 새 살림 차린 사람들



지난 9월 30일에 송도국제도시 품림아파트로 이사 온 박지영(37)씨는 인천의 새내기다. 남편 직장 때문에 인천으로 이사 온 지 겨우 한달 남짓이라 모든 것이 낯설기 그지없다. 무엇보다 3개월 가량의 주말부부 생활을 청산한 데다 남편은 걸어서 송도국제도시 내에 있는 직장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송도로 이사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다.

새 아파트라 편리한데다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진공관을 통해 집하장에서 바로 처리되는 것이나 최첨단 경비시스템 등은 신기하기까지 하다. 앞으로는 병원 진료와 쇼핑, 택시 예약, 행정서비스에서부터 자연재해 정보 입수까지 거의 모든 것을 휴대전화로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니 TV에서 광고하는 유비쿼터스 아파트가 이런 것이구나 싶단다.

| 주거 |

송도국제도시에는 2공구 내 53만8천평에 1만500세대, 2만3천명의 주민이 살게 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스코건설 등 7개 건설사에서 2009년 1월까지 9천121세대의 아파트와 주상복합 오피스텔을 짓고 있다. 지난 3월 품림아이원 4.5단지가 준공돼 848세대의 입주가 시작된 이래 10월 7일 현재 3천88세대, 1만200여명이 송도에 살림을 차렸다. 내년에는 성지리벨리우스 626세대를 비롯해 한진로즈힐 661세대가 준공되며 2007년과 2008년에는 도시개발공사 웰카운티(1,778세대)가, 2009년에는 포스코 The#1st World의 1,596세대의 아파트와 1,058세대의 오피스텔이 지어져 국제도시 시민을 맞이할 전망이다.



글 _ 정경애 (편집위원 · happyjka@incheon.go.kr) /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국제도시에 부여된 임무는 국제업무·지식기반산업의 중심지. 총 1천611만평 중 1단계로 조성되는 660만평 가운데 80만평에는 살리곤밸리와 같은 첨단지식산업단지가 들어서고 10만평에는 21세기 지식사회를 대표하는 산업인 첨단바이오산업단지가 조성된다. 또 167만평에는 NSC에서 국제비즈니스센터를 건설할 계획이며 국제시민이 살게 될 주거단지도 54만평에 조성돼 '송도 시민'을 맞고 있다.





인천 가을에 빠지다 | 산사(山寺) 찻집 기행

飲~ 차 한잔에 해탈이로다

산의 모습이 다르듯 절마다 물맛이 다르다. 물은 산의 마음을 담아내기 때문에 물마다 향기와 맛이 다르고 또한 표정도 다르다. 절에서 나오는 물로 차를 끓이기 때문에 산사 찻집에서 차를 마시는 것은 산의 영겁 명상을 마시는 것이다. 또한 산의 만년 적막의 숨결을 들이키는 것이요, 산의 천년 숨결에 닿는 것이다. 그리고 살며시 산의 가슴에 안겨 보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자연으로 다시 귀의하는 이 가을. 깊은 산속의 절 찻집 뜨끈뜨끈한 구들장에 앉아 향 짙은 차 한 모금 마시면 사바세계의 오욕칠정(五慾七情)이 말끔히 사그라들 것이다.



걸쭉한 인연을 맺다

전등사 죽림다원 (竹林茶園)

세 개의 큰 산봉우리가 솔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정족산(鼎足山). 그 기슭에 천년고찰 전등사가 자리 잡고 있다. 전등사는 경내에 구르는 돌조차 국보나 보물급이라 할 만큼 문화재로도 귀한 곳이다. 전등사는 흥례돌문에서 대조루에 이르는 길이 운치가 있어 낙엽지는 가을에 유난히 그림이 좋다.

죽림다원은 언뜻 보면 사찰의 요사채처럼 보일 만큼 자신을 숙인 채 산 한쪽에 묻혀 있다. 때문에 분위기 잡고 사색하고 싶은 여행객들에게는 둘도 없는 피안처이다. '참 좋은 인연입니다' 찻집 입구의 양증맞은 목각간판 덕분인가 좋은 인연을 쌓으려는 중생들의 발길이 뻗질 나게 이어져 다원으로 내려가는 나무 계단이 닳아가고 있다.

그림자 넓게 펼친 느티나무와 그 아래 놓인 나무 차탁들 그리고 아담한 연못이 연출하는 풍치때문에 오히려 차방으로 들어가는 걸음이 멈칫거린다. 차방에 들어서면 양증맞게 진열된 다기와 정갈하게 정돈된 소품들 그리고 청아한 명상음악이 분위기상 옷매무새를 고치게 한다. 밖도 좋지만 안에서 넓은 창을 통해 밖을 보는 풍경도 일품이다. 뒤편의 작은 개울의 흐름이 찻집의 운치를 더해준다.

차향을 피워낸 지 6년. 죽림다원의 대표 차를 물었더니 그냥 미소가 되 돌아온다. 부득불 추천을 강권했더니 대추차를 권한다. 10여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 따끈한 차 한잔이 나왔다. 웬걸 차림표에도 없는 '대추죽'이 나왔다. 걸쭉하고 진한 대추차가 '대표'답다.

죽림다원에는 정족산에서 딴 솔잎을 6개월간 설탕물에 숙성시킨 솔차(차명 솔바람)도 자랑거리이다. 이 밖에 녹차에 강화 6년삼을 넣은 인삼녹차 등이 추천 차 목록에 들어 있다.

개점시간 _ 오전 8시부터 일몰까지 / 문의 _ 032-937-7791

천신들의 음료 맛보다

보문사 감로다원 (甘露茶園)

강화 석모도 낙가산 중턱에 있는 보문사는 우리나라 3대 기도도량이다. 어부의 그물에 걸린 불상들을 모신 석굴사원으로 산 정상 부근에 있는 마애석불좌상이 무엇보다 유명하다. 이곳에서 바라 본 일몰의 장관은 보는 이로 하여금 금세 무아지경에 빠지게 한다. 일주문에서 법당까지 오르는 길은 인생의 고행만큼이나 힘들고 가파르다. 그 길은 시원한 차 한잔 떠올릴 만큼의 길이를 가졌다. 숨이 턱만큼 찼 즈음 눈 앞에 감로다원이 오아시스처럼 나타난다. 단아한 개량한복을 입고 미소를 머금은 주인장이 고행을 끝낸 일행을 맞는다. 건네준 한지 명함에 범명 '무상화'가 적혀있다. 극락에서 피는 꽃... 그렇구나, 여기가 극락이로구나. 극락에서의 차 한잔, 뭐 마실까 고민하는데 그 꽃이 시원한 술차와 한과를 건넨다. 향을 음미하고 있는데 별 한 마리 먼저 와 맛을 본다. 이곳은 인간과 미물이 차 한잔을 함께 공유하는 정토(淨土)이다. 명상음악의 리듬에 맞춰 찻집 천장에 붙은 연등이 느릿느릿 흔들거린다. 감로에 취한 것이다. 술값을 100일 동안 발효시켰기 때문에 술차에는 자연알콜이 생성된다. 그래서 낙가산 산행을 마친 등산객들은 이곳에서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좋은 술차를 마시고 하산한다.

감로는 단 이슬 같은 물로, 불교에서는 천신들의 음료이며 심신의 모든 고통을 없애주는 신약(神藥)의 하나이다. 보문사 감로다원에 가면 강화의 특산물인 강화사자발약쑈로 만든 약쑈차 등 갖가지 '신약'을 마실 수 있다.

개점시간 _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문의 _ 032-933-8277



심전심으로 깨달았다.”라고 알듯모를듯 선문답식으로 답한다. 차를 청하자 새하얀 아카시아 잎이 떠 있는 빛깔이 맑은 빨간 오미자차를 내어왔다. 아하, 이 찻집에서는 모든 차에 노을을 넣어 주는 것을 몰랐구려...

개점시간 _ 오전 9시부터 일몰까지 / 문의 _ 032-932-9106

별들과 속삭이다

선원사 들꽃

'들꽃'은 강화 선원면 선원사 경내에 있지 않고 절과 같은 동네에 있는 찻집이다. 기왓집을 개조해서 만든 들꽃 찻집에 들어서면 마치 시골 외 할머니 댁에 놀러 온 기분을 자아낸다. 잔디 깔린 앞마당 곳곳에 핀 이름모를 들꽃들 그리고 햇살 들어오는 조그마한 툇마루 등 지나가던过客들은 이런 정겨운 모습에 이끌리어 무심코 찻집으로 들어온다. 해거름에 찻집에 들어가 국화차를 주문했다. 잠시 후 주인장은 툇마루에 '별'을 하나 들고 나왔다. 영롱한 조명등이 켜 있는 이색적인 찻잔에 국화차를 담아왔다. 날이 어둡자 별은 더욱 빛나고 찻집에서 바라 본 건너편 김포 쪽으로는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작은 불들이 깜박이기 시작했다.

개점시간 _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문의 _ 032-933-3031

글 _ 유동현 (편집위원 · batubatu@incheon.go.kr)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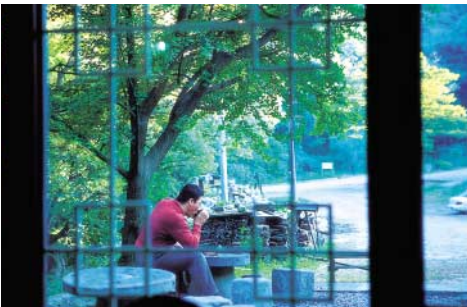


바람도 잠시 쉬어가다

백련사 차향따라

고구려 장수왕 시절, 어느 스님이 강화 고려산에 올랐다. 산 정상에 있는 연못에 핀 빨강·파랑·노랑·검정·하얀 연꽃을 꺾어서 공중에 날렸다. 꽃잎은 하늘하늘거리다 각각의 장소에 떨어졌다. 떨어진 연꽃잎의 색깔대로 다섯 개의 사찰을 세웠다는 아름다운 전설이 전해온다. 하얀 연꽃이 떨어진 백련사(白蓮寺)에는 사찰을 호위하듯 400~500년 된 아름드리 나무들이 세워져 있다. 거목의 그림자에 포근하게 자리 잡고 있는 찻집 '차향따라'는 외향부터가 좀 색 다르다. 동·서양이 만난 퓨전스타일의 건축물이다. 찻집 앞에는 작은 연못과 돌로 만든 차탁이 놓여 있다. 산이 깊어서일까. 바람도 찻집 앞에서 잠시 쉬어가듯 적막감이 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난 98년에 문을 연 차향따라에는 순전히 차를 마시기 위해 바람메고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는 사람들이 많다.

개점시간 _ 오전 10시부터 일몰까지 / 문의 _ 032-933-5085



바닷바람 속의 차향

인천 청량산은 이름 그대로 시민들에게 사시사철 청량한 공기를 제공한다. 청량산에는 흥륜사, 호불사 등 이름 있는 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어 불자는 물론 많은 시민들이 쉼을 얻고 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인근에 있는 흥륜사 경내에는 전통찻집 '침터'가 있다. 대웅전에 이르는 기다란 돌계단 옆에 자리 잡은 이 찻집은 차라리 휴게소라고 해야 어울린다. 인천앞바다와 송도국제도시 등이 한눈에 내려다보여 입과 눈이 함께 즐거운 곳이다. 전통차 뿐 만 아니라 공양할 수 있는 간단한 음식도 팔고 있다. 흥륜사 옆 송도선원 입구에는 차를 파는 '예소담'이 있다. 잘 꾸며진 정원에서의 차 한잔은 청량산의 기운을 마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자연의 빛으로 채색한 가을향기

강화는 양손 엄지와 검지로 시야에 들어오는 무엇이든 구도를 잡아도 근사한 풍경화가 되는 곳이다.

도시의 소음과 멀어질수록 창작의욕은 더더욱 불탄다는 예술가들, 그들에게 강화의 들과 산은

예술혼을 불사르는 '불쏘시개'가 돼 작가들의 집 앞마당과 모교의 교정이 작업실 혹은 작품 전시실이 된다.

더리미미술관

뜰 안에 서면 나도 명작이 된다 더리미미술관

한 톨 한 톨 아무지게 살진 벼이삭들이 세상 밖으로 나갈 채비만을 하고 있을 무렵, 강화 전체는 노란색 물감으로 채색된다. 강화대교를 건너 후 강화 역사관을 지나쳐 해안도로를 타고 내려오면 노란 물결사이로 세련된 하얀 건물 한 채가 보인다. 주위 건물들과 '부조화'된 이국적인 풍치 때문에 들어 오라는 이 없어도 이미 마음은 갤러리 안에 가있다. 조심스레 문을 열면 제일 먼저 반기는 건 진한 원두커피향. 더리미미술관의 옛 이름 '갤러리 프란스·인'에 걸맞게 유럽풍이 진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갤러리 내부로 들어갈 수록 상황은 반전된다. 뜰 안에 진열된 소품들은 두터운 세월이 퇴적되어 흠사 골동품 같다.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사용했음직한 항아리들, 방금 밥을 짓고 난 듯 온기 가득해 보이는 부뚜막의 솔단지, 재봉틀 부품의 일부로 보여지는 소품들... 김경민 관장의 미적 감각에 따라 의미있게 배열된 소품들 사이에 가만히 앉으면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진다. 눈이 더 즐거운 곳은 1층이 아니라 2층이다. 뜰 안이 한 눈에 들어올 뿐 아니라 시원하게 뚫린 사방은 액자 없는 미술관이 된다. 무엇보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한옥의 안채로 보이는 살림집을 살짝 엿볼 수 있어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현대와 고전을 오가며 감상할 수 있다.

문의 _ 933-9297 / 10:00~17:00 / 관람료 1,000원 / 비정기적 휴관으로 사전 전화 필요



노을도 '전원'에서 놀다가다 전원미술관

강화에서 태어난 작가들은 귀소본능에 충실하다. 마치 알을 낳기 위해 돌아오는 연어들처럼... 작가 유광상 씨 역시 일본과 유럽 등지에서 미술 활동을 하다가 전원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다시 듣기 위해 30년 만에 고등학교 미술교사인 부인, 아이들과 함께 고향 들녘으로 돌아왔다. 전원미술관은 담장이 없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강화를 여행하다 잠시 들어가 놀 수 있는 쉼터이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지 이미 오래지만 강화의 가을 햇살은 절대 검손해지는 법이 없다. 그렇게 강한 가을별도 어둠에 쫓기어 달음박질치기 전에 쉬다가는 곳이 바로 여기 '전원'이다. 이 풍광 또한 놓치기 아쉬운 작품 중 하나이다. "햇살이 강하면 벼가 누렇게 익는 줄은 모두가 알지만 비가 한번 거세게 내리칠 때면 벼가 쓰러진다는 사실은 몰라요." 이런 자연의 생사고락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전원으로 돌아온 그이다. 이곳에 들르면 작품들을 감상하며 그와 함께 그림에 관한 이야기는 물론 살아가는 이야기 등 마음껏 담소를 나눌 수 있다. 그가 정신요양원을 찾아가 미술치료를 하는 것도 모두 전원의 넉넉함이 가르쳐 준 것이다.

문의 _ 934-3560 / 10:00~18:00 / 관람료 1,000원 / 휴관 없음



작품심고 추억심는다 심은미술관

아이들은 교실 안의 이야기보다는 교실 밖의 이야기에 관심이 더 많은 법이다. 흑판의 칠팔한 글씨들과 선생님의 단조로운 억양에 지쳐 이따금씩 내려다보던 교실 창밖. 그 창밖의 세상이 전정우 화백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쳤고 그 교정이 상상의 여백이었으리라. 교실의 창문 한 칸 한 칸이 액자가 되고 액자 속 풍경은 영락없이 수채화가 된다. 액자속의 배경이 그에게는 도화지였다.

공부시간의 어린 상념들을 그 위에 마구 그려댔던 전정우 화백은 어릴 적 수순의 빛깔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1회 졸업생인 그는 모교 강후초등학교가 폐교가 되자 자신의 아호를 따서 심은미술관으로 꾸었다. '첫' 자는 누구에게나 첫눈 같은 것이고 첫사랑 같은 것이다. 그에게는 첫 학교가 그려왔을 것이다. 학교 교실도, 교정도, 운동장도 그대로 보존된 상태에서 그 위에 작품들을 살짝 얹어놓았을 뿐이다. 200여점이 넘는 작품도 감상하고 교실을 꾸며 만든 쉼터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잊었던 모교의 추억을 더듬어 본다.

문의 _ 933-0964 / 10:00~17:00 / 관람료 2,000원 /
www.simeun.org / 매주 월·화 휴관



미술의 장

그 밖에도 강화에서 폐교를 이용한 미술관으로 '코스모스갤러리'와 '미술의 장'이 있다.

코스모스갤러리는 감상·휴식·재충전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는 공간이다. 전문 디렉터가 꾸미는 미술관으로 작품의 배치나 교실을 이용한 카페의 인테리어에서 전문가의 손길이 느껴진다. 교사들이 사용했던 관사는 식구들이나 동료들과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

(문의 _ 933-6188 www.cosmosgallery.co.kr)

미술의 장은 60대의 퇴임한 미술작가 혹은 미술교사 10여명이 함께 미술작업도 하고 전시도 하는 공간이다. 각각의 교실 문을 열 때마다 서양화, 동양화, 조각 등 다양한 미술세상을 만날 수 있다. 미술작품의 보존과 전시에 그치지 않고 미술관 자체가 살아있는 창작의 현장이며 배움의 장소가 되고 있다. 강화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미술 강좌도 연다.

(문의 _ 932-2460, 016-596-2465)



무채색 도시에 물감 뚝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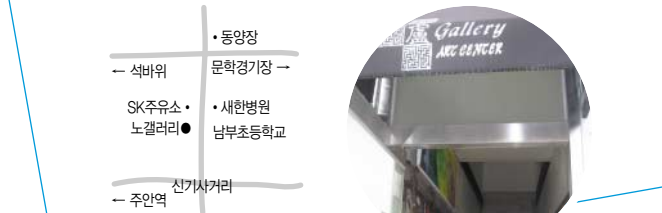
열려있는 공간 스페이스 빔

지역 미술연구를 위해 지난 2002년 예술가와 일반인들이 모임을 갖기 위해 마련된 '젊은' 공간이다. 올해 개관 3주년을 맞아 '문화-예술 학습공동체-스페이스 빔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으로 새롭게 변신했다. 일반적으로 전시나 공연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미술에 대한 정보와 관심을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다.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김창기 조각전이 열린다. (422-8630)



젊음과 꿈을 그리는 노갤러리

노갤러리는 문화센터와 조형미술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미술작품을 전시하고 싶지만 부담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과 대학생들에게 무료로 대관 해주고 있다. 또 이곳은 지역의 예비 미술인을 발굴하기 위해 화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젊은 예술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작업 공간이다. 11월중에 서양화가 하금주 씨와 노갤러리의 큐레이터 김영석 씨의 개인전이 열린다. (442-2111)



3 in 1 해원갤러리

지난 8월에 문을 연 해원갤러리는 1층을 전시실로, 3층을 미술품 보관 및 전시 판매실로, 4층을 문화교실로 꾸며 전시, 판매, 미술 강좌 3가지를 한 건물에서 해결할 수 있는 토탈 아트센터이다. 갤러리 대표 장혜원 씨는 개인적인 예술 열정으로 갤러리를 개관했지만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미술작품을 관람하고 구입도 할 수 있는 대중적인 공간으로 운영해가고 있다. 11월에 파스텔 동우 선우회전과 '풍경처럼'이라는 주제로 그룹전이 열린다. (422-8863 www.hwgallery.co.kr)



예술계의 신기루 해시(海市)

지난해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부가 10주년을 맞으며 부설로 마련한 문화공간이다.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소이다. 전시, 영상물 상영, 세미나, 포럼, 소모임 등이 이뤄진다. '해시(海市)'는 표면적으로 해양도시 인천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지만 본래 '해면의 신기루'를 의미한다. 11월4일부터 24일까지 인천민족미술인협회 정기전과 11월25일부터 12월1일까지 김영경 씨 사진전이 열린다. (423-0442 www.artincheon.com/haesi)



글 _ 김미희 (편집위원 · meehee75@incheon.go.kr) /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문화향기 가득한 일상으로의 초대

무심코 들렀던 일상적인 공간에서 뜻하지 않게 명작들을 만나게 되면 메마른 감성이 조금은 촉촉해 질 것이다.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으로 부평구청 2층의 미술전시관(509-6414)과 연수구청 7층의 연수문화원(821-6229, yeonsu.or.kr)이 있다. 그 밖에도 인천시청역, 부평역, 인천터미널역, 예술회관역 등 지하철역사에서 부정기적으로 전시가 열린다(451-2141). 기업체에서 운영하는 미술관으로는 관교동 신세계백화점 내 '신세계갤러리(430-1157)'와 주안 한서상호저축은행 내에 있는 '한서아트홀'이 있다(430-3347).



이루마의 겨울이야기

한국을 대표하는 뉴에이지 피아니스트 이루마는 드라마와 CF에 그의 음악이 삽입되면서 더욱 유명해졌다. 특히 활발한 순회공연으로 국내는 물론 일본 등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2005년 가을, 새로운 음반을 발매한 그는 겨울의 길목에서 새 음악으로 또다시 즐거움과 따뜻함을 선사해 줄 것이다.

일시 _ 11월 6일(일) 오후 5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55,000원 / S석 45,000원
문의 _ 하늘기획 (322-2121)

제265회 인천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 특별초청음악회

눈부신 기교와 깊은 감성을 겸비한 연주자 바이올리니스트 이성주와 인천시립교향악단이 들려주는 콘체르토의 무대이다. 브람스의 대학축전서곡 작품80, 브르흐의 바이올린 협주곡 제1번 사단조 작품26, 슈만의 교향곡 제2번 다장조 작품61을 들려준다.

일시 _ 11월 24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_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10,000원 / S석 7,000원 / A석 5,000원
문의 _ 인천시립교향악단 (420-2781, 438-7772)

도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ASIA TOUR 2005

마에스트로 정명훈, 일본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수준의 오케스트라 도쿄 필하모닉 그리고 한일 양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연주자인 첼리스트 고봉인, 바이올리니스트 사야카 쇼지가 함께하는 무대이다.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2중 협주곡 Op.102와 쇼스타코비치의 교향곡 5번 d단조 Op. 47을 협연한다.

일시 _ 11월 13일(일)
장소 _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 A석 20,000원
(예매 / 엔티켓 1588-2341 www.enticket.com)
문의 _ 420-2764, 420-2020~2

국립극단 맹진사댁 경사

우리나라 희극의 백미인 '맹진사댁 경사'는 구습 결혼제도의 모순과 양반의 권력지향적인 허욕, 어리석음, 위선과 횡포를 희화한 작품이다. 순진한 전통적 한국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이 작품은 혼례라는 통과 의례의 해프닝을 통해 이 시대의 참된 마음씨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을 돌아본다. 뛰어난 연기력이 보장된 국립극단의 배우들이 출연하여 작품의 가치를 한층 더 높여줄 것이다.

일시 _ 12월 2일(금) 오후 7시
장소 _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찌리재홀
티켓 _ R석 12,000원 / S석 8,000원
문의 _ 760-3466~7



국립 MADI 나는 항상 나였다



여배우 네 명의 압축적이고 절제된 동작들로 표현한 이 미지극 형식의 연극이다. 주인공 '나'의 내면세계를 보여주는 나열식 대화, 편지, 인터뷰, 메모, 꿈 등이 '나'의 의식변화에 따라 서술되는 작품이다. 71년 독일에서 발표돼 극찬과 비판의 시선을 한순간 끌어안았던 작품으로 2000년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극단 뮌토스에 의해 연극화 되었다.

일시 _ 11월 1일(화) ~ 20일(일)
평일 오후 7시 30분 / 토요일 오후 3시·6시
일요일·공휴일 오후 4시 (월요일 공연없음)
장소 _ 학산소극장
티켓 _ 일반 10,000원 / 청소년 8,000원
문의 _ 866-3993

극단 십년후 창작 뮤지컬 꽃님



독특한 한국적 설화로 세계 공통의 정서에 어울리는 뮤지컬을 제작하는 극단 십년후에서 이번에는 광개토대왕의 위대한 정복전략 통치철학의 뿌리를 찾아가는 창작뮤지컬 <꽃님>(부제: 부활의 노래 아! 고구려)을 공연한다. 이 뮤지컬은 영락대왕 즉위 이전 16세의 담덕태자가 겪었던 끝없는 갈등과 혼란의 전쟁, 그리고 그 안에서 꿈꾸었던 사랑을 통해 참된 지도자로 성장하는 이야기다. 역사적으로 상세히 밝혀진 적이 없는 때를 소재로 삼아 공연 예술의 무한한 상상력을 보여 준다.

일시 _ 11월 17일(목) ~ 20일(일)
목·금 오후 7시 30분 / 토·일 오후 4시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_ R석 25,000원 / S석 20,000원
문의 _ 514-2050 www.samsin.info

가족 뮤지컬 제비와 흥부

고대 소설의 대표작 중의 하나인 이 작품은 착하고 올바르게 살면 결국 큰 복이 찾아온다는 권선징악이 주제다. 마당극으로서 복과 장구로 효과를 내고 마당쇠가 해설자 역할을 하기도 하며, 인형과 사람이 복합된 뮤지컬과 창, 민요 등이 어울려 익살스러운 풍자와 해학으로 흥을 돋운다.



일시 _ 여성문화회관 (부평)
11월 9일(수) 오전 10시 20분·11시 20분, 오후 4시
11월 10일(목) 오전 10시 20분·11시 20분
여성의 광장 (동춘동)
11월 11일(금) 오전 10시 20분·11시 20분, 오후 4시
11월 12일(토) 오전 10시 40분, 오후 2시·4시
티켓 _ 일반 12,000원 / 할인 8,000원
문의 _ 사랑극단 꼬마세상 (572-4281, 016-2500-560)

감성뮤지컬 아낌없이 주는 나무

어린이를 위한 동화 같은 가족극이지만 어른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부제: 꿈추나무의 사랑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는 이야기이다. 기존의 뮤지컬에서 볼 수 없었던 감성을 자극하는 드라마틱한 구성의 노래와 춤이 락음악과 어우러진다. 가족애와 친구에 대한 우정과 사랑을 극화하여 마음의 장벽을 허물며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줄 것이다.



일시 _ 11월 10일(목)~12일(토)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1월 25일(금)~26일(토)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평일 오전 11시 / 주말 오후 2시·4시
티켓 _ 일반 15,000원 / 단체 5,000원
문의 _ 교육극단 보물상자 (813-8040)



가을금요상설무대 문화 Vitamin8+

부평문화사랑방의 가을금요상설무대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문화비타민'이다. 매 공연 다른 컨셉을 가진 독특한 팀들이 다양한 예술의 향기를 전달한다. 이러한 공연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제공하고, 성인들에게는 새로운 활력을 준다.

• 11월 4일(금) 오후 7시 / 미추홀기타합주단 (클래식 기타)
• 11월 11일(금) 오후 7시 / 팔음(八音) (퓨전국악)
• 11월 18일(금) 오후 7시 / 브로큰 펄 (모던락)
• 11월 25일(금) 오후 7시 / 청배 (풍물)

장소 _ 부평문화사랑방(부평구 갈산2동)
문의 _ 505-5995

10월 31일 ~ 11월 3일
2005 인천국제디자인페어
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전관 440-2797

11월 4일 ~ 10일
인천미술의 힘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433-1710
에그아트협회 회원전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017-336-7287
제10회 우리들의 이야기 여류사진가회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011-212-2830
제3회 드로잉 미추홀전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011-9766-9550

11월 11일 ~ 17일
제24회 인천광역시 미술초대추천 작가전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중앙전시실 011-328-1135
제3회 초청 강길자전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016-9388-1253
인천광역시 공예인협회전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011-332-0733

11월 18일 ~ 24일
제5회 인천광역시 보육교사교육원 교재교구전시회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428-1357
제7회 의연회 정기 전시회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019-265-4243

취 (만남전)
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010-9698-4228
현화숙 개인전
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011-777-7553

11월 26일 ~ 28일
인천광역시 수석인총연합회 회원전
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011-9941-1777

11월 25일 ~ 12월 1일
2005인하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전시회
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소전시실 010-3019-9671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연극축제 11월의 만남

2005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작 시리즈 연극축제 ‘11월의 만남’은 이미 대학로 등지에서 작품성과 흥행성을 인정받은 작품들로 이 가을에 그 명성 그대로 인천의 무대에 오른다. 평소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노인복지 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소의 계층에게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회당 100여 객석이 마련된다.

일시 _ 11월 5일(토) ~ 12일(토) **장소** _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1회당 일반 20,000원 , 학생 및 일반단체 12,000원 | **패키지** 일반3회 모두 구매시 36,000원
예 매 엔티켓 1588-2341 (www.enticket.com)
문의 _ 818-5727

첫 번째 무대

극단 백수광부 **고래가 사는 어항**
11월 5일(토) 오후 3시·7시



가을날의 동화같이 따스한 연극이다. 한 소년이 하룻밤 동안 겪는 기이한 수난을 한편의 동화처럼 풀어낸 작품으로 동화의 껍데기를 가졌으나 철학적 성찰이 녹아있는 우화이다. 소년 클레오는 황금만능주의에 물든 현대사회의 모습을 가로등불이 꺼진 어두운 거리로 비유하며 비판하지만 결국 인간과 사랑에 대하여 순수하고 때론 즐겁게 그리며 ‘그래도 세상은 살만하다’라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두 번째 무대

극단 오늘 **늙은 부부 이야기**
11월 10일(목) 오후 3시·7시



〈늙은 부부 이야기〉는 작년 겨울, 소극장 공연 중 가장 많은 관객을 유치하고 평단과 관객들에게 극찬을 받은 작품이다. 사회적 인식으로 볼 때 황혼의 나이란 말은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자립능력이나 본능적인 욕구가 사라진 나이라고 낙인 찍혀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인들은 여전히 젊은 시절 어느 때보다 더욱더 사랑을 원한다. 그들의 사랑은 소외된 노인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무대

극단 이와삼 **차력사와 아코디언**
11월 12일(토) 오후 3시·7시



시골장터를 돌며 전전하는 삼류 인생들의 유랑이야기로 티켓파크, 티켓링크 등 공신력 있는 공연티켓 사이트에서 수많은 관객들에 의해 호평을 받은 연극이다. 극 중 실제 차력 소로 인해 관객들은 시장 장터에서 직접 차력단을 만나고 있다는 착각과 공연 속에 자신도 녹아 있다는 혼동을 갖게 하는 연극이다.

합창과 함께하는 갈라콘서트

6명의 솔리스트들과 인천시립합창단이 꾸미는 노래의 향연.

일시 _ 11월 2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_ 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_ 전석 7,000원 (단체 40% 할인) **문의** _ 인천시립합창단 (420-2784, 438-7773)

제58회 출마당 흥마당 청소년 문화나들이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선도하고 시민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우리 고유의 미를 선사하기 위해 인천시립무용단이 찾아가서 펼치는 춤마당 흥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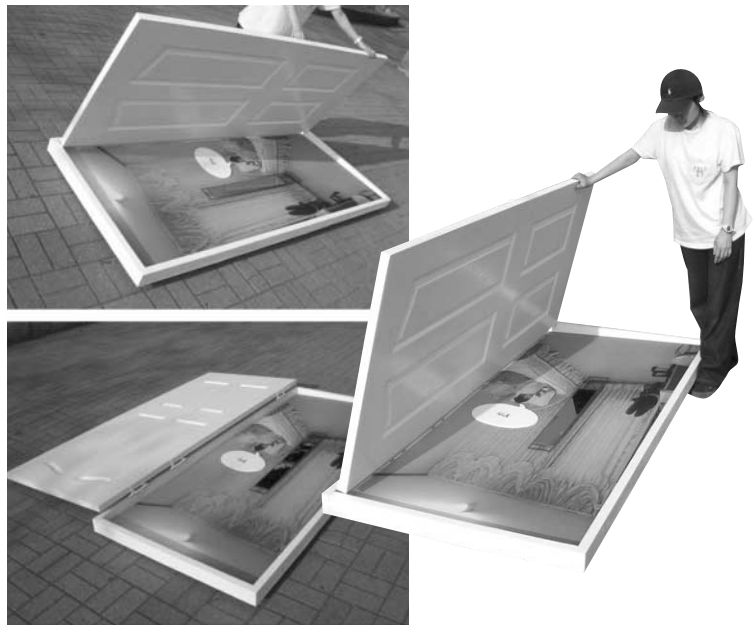
일시 _ 11월 30일(수) 오전 11시, 오후 3시
장소 _ 인천청소년수련관
문의 _ 인천시립무용단 (420-2788, 438-7774)



일	토	일	화	수	목	금	토	일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7	8	9	10	11	12	13	14	5
14	15	16	17	18	19	20	21	22
28	29	30	23	24	25	26	27	4

미디어아트 전시 溫 & On

11월 4일(금) ~ 11일(금)
주안로 지하상가,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주안역, 미추홀길 일대



‘온앤온 溫 & On’은 전통과 최신을 아우르며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개념을 총망라한 전시, 하이퍼텍스트 방식으로 관람자가 전시를 직접 재구성할 수 있는 참여형 진행, 그리고 일상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내게 해주는 블로그 특별전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과 미디어가 만나는 미디어아트 전시이다. 사람이 어우러져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따스함이 전해지는 ‘溫 & On’ 디지털 세상은 사람의 삶 안에서 관계를 관계답게 복원시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와 같은 미디어를 상징하는 것이다. 전시를 통해 이루어질 교감들은 따뜻한 온정이 있는 미디어 세상을 꿈꾼다.

| 주요 프로그램 |

- 1. 지하상가낙원 (주안로 지하상가 / 메인전시)**
주안청소년미디어센터 및 주안역, 주안로 지하상가, 옛 시민회관 쉼터에 생활환경에서 만나는 작품을 설치, 전시
- 2. 당신이 있어...다행이다 (미추홀길 일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대상에게 편지형식의 글을 써 이미지와 텍스트를 한 장의 종이에 표현, 이 결과물을 전시장 벽면에 부착 등
- 3. 블로그.01름을 불러주다 (남구청소년미디어센터)**
블로그를 통해 보여 지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문화탐색, 작가의 작품활동 공간으로서, 전시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

문의 _ 032-876-3739, www.jumf.or.kr



예술영화제 프랑스 실험영화의 도전

1895년 루미에르 형제에 의해 세계 최초로 영화가 상영된 프랑스 파리. 그 예술의 땅에서 작수임된 따끈 쇼킹한 31편의 실험영화가 예술영화 전용상영관을 꿈꾸는 MAC9과 옛 시민회관 쉼터에서 야외 상영된다. 영화 상영의 밤과 더불어 서울국제실험영화제의 스페셜 셀렉션 보너스도 있다.

일시 _ 11월 4일(금) ~ 6일(일)

장소 _ MAC9 씨네마 (메인 상영) 옛 시민회관 쉼터 (야외 상영)

국제학술제 미디어스케이프 3경

이제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헤게모니가 사이버 세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먼 길을 떠나는 이는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앞으로의 여정을 점검하는 법. 프랑스와 한국의 전문가들이 모여 넓찍하고 튼튼한 계단을 놓는다. 전망대에 올라 <실험영화, 블로그, 미디어센터>라는 미디어 세상의 파노라마를 즐기다 보면, 어느새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소중한 지도 한 장이 완성될 것이다.

일시 _ 11월 3일(목) 오후 1시 ~ 5시

장소 _ 인하대 정석학술정보도서관

21세기로 열린 창 인천미술展

11월 4일(금) ~ 10일(목)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인천문화재단 설립 1주년 기념으로 마련된 이번 기획은 근현대 인천미술의 비평적 조명을 통해 현 단계 인천미술의 현황을 냉정히 짚어보고 미래의 인천미술을 예견하는 장으로 마련된 것이다. 그간 인천을 연고로 작품 활동을 해온 60대부터 30대까지 주요작가들의 작품전을 통해 인천미술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인천미술의 좌표를 설정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미술인들에게 창작동기를 부여하고 시민들에게는 인천에 대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물론 지역 미술에 대하여 보다 큰 애정과 관심을 갖는 단초가 마련될 것을 기대해 본다.

토론회 인천미술의 현황과 과제
11월 4일(금) 오후 3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

문의 _ 032-433-1710

- | | |
|---|---|
| 1 | 2 |
| 3 | 4 |

1. 강 광 작
2. 최병국 작
3. 박동진 작
4. 김경인 작



참여작가 | 강광(서양화), 오원배(서양화), 강하진(서양화), 김경인(서양화), 박인우(서양화), 정용일(서양화), 정정엽(서양화), 하관식(서양화), 최병국(한국화), 이종구(서양화), 장명규(서양화), 오상일(조각), 정현(조각), 김병종(한국화), 공성훈(서양화), 이강화(서양화), 박동진(서양화), 고진한(서양화), 이태(영상/설치), 박충의(서양화), 양승수(영상/설치), 최효원(서양화), 이의재(한국화), 이창림(조각), 양창석(한국화)

씨앗 뿌린 인천이 거두는 게 순리

지난 2003년 7월 우리시 송도·영종·청라지구가 우리나라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물류중심국가로 성장시키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같은해 10월 15일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이래 우리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는 다른 입장과 견해를 보이고 있다.

재정부의 진단은 잘못됐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은 우리시가 투자유치를 잘 못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재정경제부의 잘못된 진단에 있었다. 그러나 투자유치가 부진한 진짜 이유는 외국투자가 입장에서 볼 때 경제자유구역의 인센티브가 부족해 투자매력이 떨어지고 기반시설, 업무시설, 정주 여건의 미성숙에 따른 것이지 경제자유구역청을 재정부가 관할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외국인 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환경을 좋게 만들고 아울러 살기 좋고 생활하기 편리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시에서는 경제자유구역에 인천대교, 인천지하철 연장, 제3경인고속도로, 제2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7호선 지하철 연장, 공항철도, 제2단계 공항 활주로 공사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로드맵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기반으로 선개발 후투자유치를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KOTRA 등과 긴밀한 협조 하에 외국기업유치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제업무지구 조성, 송도바이오단지 조성, 인천대교 건설, 골프장개발 사업, 공항물류단지 건설, CTT 및 R&D 등 6건(142억불)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MOU 2건(20억불), LOI 9건(4억불) 등 총 166억불의 외자를 유치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최초의 UN 산하기구를 유치하기도 했다. 아태정보통신기술센터(APCICT)는 내년 상반기에 개소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62개 ESCAP회원 및 준회원 국가를 상대로 정보화 촉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IT 무상교육훈련을 제공하고 정보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특별지자체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한다

재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설립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중앙부처 차관급, 지자체 부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민간전문가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재정에 있어서는 설립기관의 분담금과 국고보조금, 사용료, 수수료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인 듯 하지만 분담금은 60% 이상을 중앙이 부담해 이사회 구성이나 권한행사에 있어 지분만큼 행사를 하게 돼 다수결 원칙상 우리시는 소외되기 마련이다.

여의도의 70배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을 특별지자체로 만들면 강화도를 제외한 인천의 절반을 정부가 통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인천은 둘로 쪼개져 분할 통치되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또한 지방에서 추진하는 사무를 국가가 직접 기관·관할하겠다는 것은 헌법정신과 지방자치법의 자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위임, 이양하기 위해 지방분권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입법정책적으로 모순이다. 아울러 군부대 이전과 같은 장기적 대형·고질 민원이나 관광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에 착수할 때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속수무책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특별지자체는 위로는 중앙정부, 한편으로는 시와 3개 구청을 상대해야 하므로 대외 창구가 몇 배로 늘어나 '업무 회피와 책임 떠넘기기'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인천시민의 희망을 빼앗길 수는 없다

가장 궁극적인 것은 인천시민의 희생과 인내로 이루어진 경제자유구역이 시민의 손을 떠난다는 것은 지역 정서상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이다. 중앙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인천은 소외되고 시민편익은 무시될 것이다. 그동안 각종 수도권 규제로 인천은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기 때문에 인천시민은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한 상태이다.

우리시가 지방과 국가를 위해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며 이룩한 성과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이다. 1982년 용역에 착수해 1994년부터 매립공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1조5천억원을 투입했다. 시민의 혈세투입은 물론 어업보상, 군부대이전, 제2연륙교 주경간폭, 영종개발방식 등 우리시가 수 많은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며 이루어낸 경제자유구역을 또 빼앗아 간다면 그 반발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우리시가 해야 국가적으로 이익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이미 정해져 있다. 중앙정부는 정보를 제공하고 법제 정비 등 큰 흐름을 잡아주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지방정부는 사업을 구체화하는 실행, 집행의 업무를 주로 맡는 것이 기본이고 효율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이다.

앞으로 2008년에는 북경올림픽, 2010년 상해 엑스포 등 동북아 지역에 대규모 국제행사가 계획돼 있다. 2008년 북경올림픽을 겨냥해 경제자유구역 1단계를 차질없이 완성해야 동북아 물류중심지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는 때에 경제자유구역을 누가 관할하느냐는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할 때 가장 잘 할 수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경제자유구역을 맡기겠다는 것은 일을 전문가에게서 빼앗아 초보자에게 넘기는 격이다. 우리 인천시는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굿인천 굿뉴스

2012년 인천민항기 뜬다

우리시에 국내선과 단거리 국제선을 운항하는 저가 항공사가 설립될 전망이다. 이는 영종지구를 항공·물류 국제도시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 중의 하나이다. 우리시는 내년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등 항공사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0년에 자본금 500억~1000억원을 들여 가칭 ‘인천민항’을 신설한 뒤 건설교통부의 허가를 받아 2012년을 목표로 노선운항을 개시할 방침이다. 단거리 국제선으로는 운항시간이 5시간 이내인 일본, 중국 등이 포함된다.

문의 _ 시 항만공항물류과 440-3454

제2외곽순환도로·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민자유치 방식으로 건설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구간이 2010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에 착공된다. 인천구간은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사거리~인천항~청라경제자유구역~경서동~검단~양촌까지 28km정도에 이른다. 북쪽으로는 파주 등 경기북부와 남쪽으로는 시흥, 봉담 등 경기남부로 연결된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등과 연계해 송도국제도시와 영종지구, 청라지구를 이어 물류 활성화와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게 된다. 또한 파주를 거쳐 개성공단까지 도로망이 연결되면 대북교류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한편 인천 남동구에서 서해안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제3경인고속도로가 2009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올 연말 착

공된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남동구 고잔동에서 시흥시 목감동을 연결하며 14.3km로 건설된다. 목감IC에서 도리JC간 2.1km는 4차로로, 도리JC에서 인천 남동공단간 12.2km는 6차로로 각각 건설된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우리시와 인천공항, 경기도 남부지역 사이에 사람과 화물수송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도로과 440-3795

우리시 국제교류 활발해진다



지난 10월5일 인천국제교류센터가 남동구 구월동 현대해상빌딩 8층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센터는 우리시의 국제교류사업 지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지원, 자매도시와의 유학생 교환사업, UN 대학 지역센터지정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 등 다양한 교류사업과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되는 재단법인 형태의 국제교류 전문기관이며 우리시 전(前)국제자문대사 최경보 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센터는 언어에 능통한 전문직 직원 11명이 함께 이끌어가게 되며 우리시의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_ 시 국제협력관실 440-2842

‘바다의 산삼’ 해삼 대량양식 성공

인천해양수산청은 웅진군 영흥면 선재리 축제식 양식장에서 해삼 대량양식에 성공해 국내외에 시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양식장에 2g짜리 해삼 종묘 100만미를 넣고 사육한 결과 70~100g짜리 해삼으로 성장해 12월에 출하할 예정이다. 한편 영흥면 외리의 꽃게양식장에서는 지난 6월 20만마리의 어린 꽃게를 양식

한 결과 200g까지 성장해 이달 중에 출하할 예정이다. 해삼과 꽃게양식장은 폐염전과 유흥지를 활용했다.

문의 _ 인천해양수산청 수산과 880-6365

자동차 80만대 시대



우리시에 등록된 차량수가 지난 8월말 현재 79만2,556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말의 77만9,137대에 비해 1.72% 증가한 수치이다. 차종별로 승용차가 56만9,207대로 가장 많았고, 화물차 15만1,637대, 버스 6만7,718대, 특수차량 3,994대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15만4,751대로 가장 많았고 서구 12만4,497대, 남구 12만3,842대, 남동구 12만690대, 계양구 9만6,537대, 연수구 8만842대, 중구 3만9,733대, 동구 2만3,682대, 강화군 2만2,609대, 옹진군 5,373대 순으로 나타났다.

문의 _ 시 교통관리과 440-3934

남동공단에 물류센터 개장



지난 10월14일 지자체로는 국내최초로 남동공단에 물류센터가 문을 열었다. 3600여 개 중소기업이 모여있는 남동공단에 마련된 물류센터는 1800여 평 규모로 물류창고(650평)와 야적장(400평)을 갖추었다. 공동물류센터 개장으로 개별물류업무 형태였던 남동공단의 중소기업체들은 공동보관 및 집·배송이 가능해져 물류비 부담을 20~30% 절감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또 개별업체들은 물류전담능력을 갖춰 경쟁력이 높아지고 차량운행 감소로 유류소비와 교통혼잡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센터의 직접적인 운영과 관리는 협약을 체결한 삼영물류(주)가 맡게 된다.

문의 _ 항만공항물류과 440-3446

치치폭폭~ 달리는 역사전시관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경인전철 객차 내에 구한말 개항기 인천과 철도 역사를 구경할 수 있는 전시관이 생긴다. 경인전철 객차 한량에 최초 철도사진과 개항기 인천지역을 촬영한 사진 및 기념물을 전시해 주말마다 운행할 계획이다. 우리시는 한국철도공사와 ‘개항장 답사 연계 경인선 여행 상품’을 운영하기로 하고 운영시기를 협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경인전철의 종점인 인천역에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해 월미도와 자유공원, 차이나타운 등에 자전거 투어를 할 수 있는 코스가 마련된다. 또 개항장 일대인 신포동~월미도 문화의 거리를 도보답사하며 근대 건축물을 관람할 수 있는 도보코스도 만들어진다.

문의 _ 시 관광진흥과 440-4045

송도~서울 버스노선 신설

송도국제도시와 서울역, 강남지역을 1시간 내에 연결하는 2개의 버스노선이 신설된다. 송도국제도시~남동공단~제2경인고속도로~양재역~강남역을 잇는 노선과 송도국제도시~연수구청~문학터널~제2경인고속도로~외곽순환고속도로~경인고속도로~신촌~서울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각각 생긴다. 이들 노선에는 각 7대의 버스가 투입되며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소요시간은 양방향 모두 60분 정도로 예상된다.

문의 _ 시 대중교통과 440-3895

인천공항, 개항 55개월만에 승객 1억명 돌파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승객수가 1억명을 돌파했다. 인천공항공사는 14일 “오늘 오전 11시부로 전체 승객 수가 1억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 2001년 3월29일 개항한 뒤 55개월만에 일궈낸 성과”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인천공항은 개항 이후 지금까지 여객 승객 1억명, 항공화물 850만, 그리고 항공기 운항 62만 회의 실적을 보여 여객부분 세계 10위, 화물부분 세계 3위를 기록하게 됐다. 이재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여객 1억명 돌파를 기점으로 인천공항을 세계가 부러워하고 고객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허브 공항’으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05년 10월 14일자 기사)

제공 _ 노컷뉴스 (www.cbs.co.kr)

검단 45만평 산업단지 조성



서구 검단동과 오류동 일대 45만평이 계획적인 전용 산업단지로 개발된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서구 검단 등지에 난립된 공장들을 정비하고 쾌적한 도시정비를 위해 산업단지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토지주들의 개발동의를 받아 건교부에 구역지정 승인요청을 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절차를 거친 후 2007년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가 2010년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건폐율은 현재 20%에서 60%로, 용적률은 80%에서 250%로 대폭 상향되며 상하수도과 전기, 도로망 등 생산활동지원을 위한 기반시설도 확충된다.

문의 _ 인천시 도시개발공사 260-5041

송도에 과학공원 생긴다

송도국제도시에 정보통신기술(IT)과 생명공학(BT)을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과학공원이 2009년 송도국제도시에 설립될 예정이다. 과학공원은 송도5·7공구 도시공원 내에 건립될 예정이며 과학체협관, 1,100여평의 전시실, 강의실 등이 들어선다. 그 밖

에도 자연사박물관, 과학기술사, 우주항공 등 테마별 옥외전시장과 과학광장, 생태학습장, 친수공간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7월 과학공원 설치를 위한 관련법을 개정, 입법 예고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과학공원 건립지 및 건립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월미산에서 인천항을 한눈에



인천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월미산 유리 전망대가 지난 10월29일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전망대는 중구 북성동 월미산 정상부근 80m 지점에 25m 높이의 철제와 투명유리로 건립됐다. 야간에는 전망대 안에서 밖으로 빛을 발산하는 특수조명장치가 설치돼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전망대 주변 2,000여평에는 잔디공원, 야외무대 등이 마련됐으며 과거 군부대 주둔 당시 군견훈련장이었던 점을 되살려 군견 조각상도 설치됐다. 우리시는 또 2008년까지 월미공원 1,500여평에 전통정원, 월미행궁, 군사훈련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의 _ 시 서부공원사업소 440-4633

국제학교 서구에 설립

내국인학생을 위한 공립 국제학교가 2008년 서구에 설립될 예정이다. 6,000여평 규모로 3개 학년 15개 학급 370여명(학급당 25명)으로 운영되며 등록금은 1백50만원에서 2백만원선 수준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국제학교는 세계 100여개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통 대학입학자격인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과정을 이수하면 세계 유수대학에 진학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서구는 외국어교육 특구로 지정된 상태다.

문의 _ 인천시교육청 423-3303

의 정 소 식

행정사무감사·예산안심사 관련 의원연찬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박승숙)는 9월28일부터 9월30일까지 2005년도 의원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2005년도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및 2006년도 예산안 심사 등 현안사항을 앞두고 정책구상과 시정방향 제시는 물론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의 전문적인 역량을 제고키 위해 마련됐다.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 서우선 소장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의정특강에서는 의정활동의 전문적인 수행방법에 대해 강의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본회의 질문기법,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조

례입법기법, 지방재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예산결산심사기법을 포함하여 행정사무감사·조사활동기법, 지방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설정 등 내실 있는 강의 및 토론이 있었다.

또한 이번 연찬회에서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6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2회에 걸친 상임위원회별 연찬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2006년도 예산안의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해 정책 현안과의 연계성 여부, 예산 투입의 시기성 검토, 사업의 계속성, 예산의 행사성·선심성·낭비성 검토방안 등 예산의 심사전략에 대한 집중적인 연찬이 이루어졌다. 제142회 정례회에 처리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진행 방안에 대하여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외에도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김태옥 교수의 진행으로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스처방법, 언어의 품위를 주는 발음연습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언어표현전략에 대한 교양강좌도 있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자치단체전환 반대결의문 채택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은 10월 10일 제14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자치단체전환 반대결의문'을 채택하였다. 260만 인천 시민의 대변자로서 20년간 준비해온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우리 인천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중차대한 국책사업임을 직시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로의 귀속이나 특별자치체로 전환하려는 중앙정부의 발상은 지방자치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260만 인천시민과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결의문 촉구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하고 정부직속 특별자치단체 전환논의를 즉시 중지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수도권규제관련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도시 기반시설의 조기 확충이 급선무이므로 국고지원 대상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비용을 80%이상으로 상향하고 국책사업의 경우에는 100% 지원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제공 _ 인천시의회 공보팀 440-6054

| 인천시교육청 소식 |

도서관 교차휴관제 실시

공공도서관 8곳이 현행 동시휴관제를 교차휴관제로 바뀌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인천시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시기와 방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8월 토요일무제 시행이후 매주 월요일 인천 시내 모든 공공도서관을 일제히 휴관하도록 해왔으나 그에 따른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해 교차휴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중구 자유공원일대 고도제한 완화

북성, 송월, 인현, 신포동 일대 59만3743㎡의 자유공원일대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현행 2~5층에서 4~5층으로 조정될 예정이며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중에 있다. 자유공원일대 상권 활성화와 노후 건물 재건축 등을 위해 고도제한이 완화된다.

문의 _ 시 도시계획과 440-3355

남구 로봇대전 전용경기장 건립

로봇게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의 로봇대전 전용경기장이 남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수봉공원 또는 문학경기장 내 부지가 건립부지로 선정될 예정이며 600여평의 1500석 규모의 관중석, 청소년 로봇교실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된다.

문의 _ 남구청 887-1011

동구 국내최초 달동네 박물관 개관



동구 송현동 수도국산에 국내 처음으로 달동네 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낡은 판잣집과 빗바랜 간판을 단 이발소, 솜틀집, 구불구불한 골목길 등 60~70년대 수도국산의 모습이 재현됐다. 이 박물관은 13억 5000만원을 들여 300평

규모로 2002년에 착공해 지난 10월 25일 문을 열었다.

문의 _ 동구청 761-0151

남동구 만월산 등산로 정비

만수동 산6-2번지 만월산이 4개 노선 4km의 등산로가 4개월만에 새롭게 정비됐다.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생동물 보호를 위한 담수시설 설치, 계류주변 수변식재, 편의 및 운동시설, 대체등산로 정비, 수목식재 등이 조성됐다.

문의 _ 남동구청 466-3811

연수구 선학공원 테마공원으로

선학동 선학5·6·7호 공원이 특색있는 테마공원으로 새롭게 단장된다. 5호 공원은 달맞이공원으로 꾸며지며 6호 공원은 보호수와 벤치 등을 늘리고 7호 공원은 분화구 이미지를 살려 꾸며질 계획이다. 1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내에 완공할 예정이다.

문의 _ 연수구청 817-1011

부평구 신용서포터즈 창단

부평구가 지난 9월 28일 경인지역에서 처음으로 신용서포터즈단을 창설했다. 사회복지 전담직원 등 42명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단은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지원제도를 지역사회에 알리고 개인신용관리의 예방교육활동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구제활동에 나선다.

문의 _ 부평구청 509-6460

강화군 용정리, 무공해공단 조성

용정리 947일대에 내년 말까지 무공해공단을 조성한다. 총 사업비 36억원이 투입돼 1만평 규모의 공단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부품 조립업체 등 공해 없는 기업들로 입주가 제한된다.

문의 _ 강화군청 930-3114

옹진군 청소년 어울마당 개최

지난 10월19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덕적중·고등학교에서 청소년 어울마당이 열렸다. 이번 행사는 도서지역의 특성상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밝고 창의적인 청소년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문의 _ 옹진군청 880-2114

인천을 빛낸 얼굴들



새마을분야
민영철



봉사분야
오홍철



봉사분야
윤순철



공익분야
유은자



환경분야
이준배



기타특별분야
문덕웅



기타특별분야
이현선



상공업분야
김진만



농수산분야
신순규

2005년 제24회 시민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건설을 위해 힘써온 시민들에게 ‘시민상’을 수여했다. 사회공익 부문 중 새마을 분야에 민영철 새마을서구협의회장이, 봉사분야에 오홍철 한국자유총연맹 남동구지부장과 윤순철 서구장애인연합회 총무가 수상했다. 공익분야에 유은자 한국국악협회 인천지회이사가 상을 받았다. 환경분야에 이준배 (주)창원대표가 수상했으며 특별분야에 문덕웅 부평구주민자치위원장

과 이현선 씨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 산업발전 부문 중 상공업분야에 김진만 공건공업(주)대표와 농수산분야에 신순규 실미원농장 대표가 수상해 총 9명이 인천을 빛낸 영광의 얼굴로 선정됐다. 문의 _ 시 총무과 440-2413

한·중 물류센터 양국에 설립

경제자유구역과 중국 칭다오에 2007년까지 한·중 물류센터가 동시에 설립된다. 이를 위해 칭다오 물류사절단을 초청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물류센터는 해상운송물류의 보관기능과 조립, 전시, 판매와 공동 집배송 등 한국과 중국의 내륙 물류망을 확보해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된다. 한중 최초의 합자투자 방식에 의한 물류센터는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및 판로확보, 중국 내륙 물류망 거점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5만평 100억원 규모로 서울 한·중 물류센터 후보지로는 남항매립지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중 물류센터 건립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텐진과 다롄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화교자본 3억달러 유치

지난 10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울 COEX에서 열린 제8차 세계화상(華商)대회에 참가한 중국기업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투자의향을 밝혔다. 이번 화상대회에 참가한 중국의 베이징 중창텔레콤사는 인천 차이나타운개발과 관련해 3억달러 규모의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중창텔레콤사는 3억달러를 투입해 영종과 청라지역에 호텔, 카지노, 숙박시설 등을 갖춘 골프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이다. 또 중한기업연합회와 광범위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10월 11일에는 유력화상 100여명을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초청해 현장투자설명회를 가졌다.



국내 첫 국제학교 2007년 9월에 개교

외국인과 내국인 자녀의 입학이 가능한 국제학교가 2007년 9월 영종도에 학생수 총 1,056명, 유치원 초·중·고교 등 48개 학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로드앤글리아 에듀케이션 그룹 산하 상하이 영국국제학교는 2007년 9월에 유치원과 초·중학교를, 2008년 9월에 고등학교를 개교한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개발예정인 영종 운북레저단지 내 1만평을 배정하기로 협의 중에 있다. 상하이 영국국제학교가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내 국제학교 중 가장 빨리 개교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영어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연간 수업료는 2만달러 정도이다.

차이나시티·아시아문화촌 조성

경제청은 재경부와 공동으로 영종지구(운북동)에 82만평 규모의 ‘차이나시티’와 청라지구에 25만평 규모의 ‘아시아문화촌’을 각각 개발할 예정이다. 영종지구는 주거·레저·비즈니스 등 각종 기능을 갖춘 복합레저단지와 중국의 문화·비즈니스 중심의 복합타운으로 개발된다. 또 청라지구는 아시아 지역국가 관광객이 동북아문화를 종합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쇼핑거리와 민속촌, 대형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현재 영종지구 개발계획이 거의 확정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고 청라지구 개발계획은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문의 _ 인천경제자유구역청 453-7114

성공과 성장의 열쇠



이석주
(이남 대표이사,
인천동북아물류대학원
겸임교수)

우리나라 기업의 제조공정 업무와 프로세스 품질은 5시그마(대략 230ppm) 안팎인데 비해 비제조 부문은 2~3.5시그마 전후로 크게 낮다. 비제조부문에서 공공부문은 2.5시그마(158,655ppm)이하, 일반기업은 3.5시그마(22,750ppm)이하로 제조기업과 비교해 볼 때 공공부문은 500배, 일반기업은 100배 가량 업무처리 품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한 제조업체의 평균 품질 수준이 3시그마라면 업무와 프로세스의 나쁜 품질로 인한 불편과 부정확, 재작업 등으로 추가 되는 비용 증가로 파산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Cost Of Poor Quality(COPQ, 불량 품질로 인한 매출 대비 비용 부담율)가 3시그마는 25~40%, 4시그마는 15~25%, 5시그마

는 5~15%, 6시그마는 1%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역으로 비제조업체의 현 업무 수준을 3에서 4시그마로 향상시키면 GE, City Bank, Bank of America 등의 선진 기업 사례에서 보듯 품질 비용부담율이 10~15% 정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비제조부문의 업무품질 향상은 어려울까. 제조부문 데이터는 정량적이지만 비제조부문 데이터는 정성적이라 측정이 어려운 점이 있다. 가능하다 해도 데이터의 산포가 커서 문제해결을 위한 사용이 쉽지 않은 점도 있다. 그래서 비제조부문에서는 업무 분석과 문제 인식을 통해 데이터의 불필요한 산포를 제거하고 난 후 개선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 경험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제조부문에 비해 업무 품질 향상이 훨씬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 비제조부문은 현재 업무를 철저히 분석하고 업무 향상 지표만 발굴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 업무 시간중 순수 업무 시간은 20~3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준비, 대기, 결재, 승인 등 불필요한 업무(Non Value Added Process)가 차지한다. 순수 업무시간도 업무처리 능력이 개인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업무를 정형화하면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여기서 Cross Functional Process Mapping(CFPM)을 사용한 방법론이 다른 Process Mapping 보다 탁월한 결과를 가져온다. 이유는 CFPM이 업무 추진 조직간 상호작용, 업무의 상세한 Task까지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비제조 부문의 6시그마 추진시에는 제조부문과는 달리 업무를 잘 이해하는 내부 직원과 Mapping, 관련 METRICS 등을 산출하는 소수의 외부 전문가만 있으면 충분하다.

구체적으로 비제조부문중 물류산업의 6시그마 적용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CFPM을 사용하여 업무를 분석, Mapping하고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한 다음 업무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척도(METRICS)를 만든다. 이후 기존 DMAIC 방법을 이용해 6시그마를 추진하면 된다. 6시그마 추진결과는 BSC(Balanced Score Card), BPM 등과의 연계도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이제 기업과 공공기관 경영자들은 6시그마를 제조 분야 품질 해결을 위한 단순 도구가 아니라 기업의 성공과 성장을 보장하는 경영혁신 방법으로 인식해야 한다.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지난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일본 기타큐슈의 청소년들이 우리시를 찾았다. 나도 그 일원으로 토모나와 함께 2박 3일의 일정을 보냈다. 홈스테이의 시작날. 시청에서 간단한 소개를 받고 드디어 우리는 집으로 출발했다. 저녁메뉴로 버섯 불고기 정식을 먹었는데 토모나는 입에 맞는지 잘먹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다음날에는 창경궁에 가기로 했다. 창경궁의 전각들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종묘의 전경도 둘러본 후 돌담길을 따라 인사동으로 들어갔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렀만한 곳에서 또 다른 전통의 자취를 느낄 수 있어 좋았다. 돌아오는 길에는 서점에 가고 싶다는 토모나를 위해 구월동 서점에 들렀다. 한켠에 마련된 일본 잡지 코너에서 그녀는 온사마 표지의 영화잡지 한 권을 샀다.

드디어 마지막 날 아침. 일본 친구들과 호스트 패밀리가 시청에 모두 모여 인천에절원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모두 한복을 입고 우리 민족 고유의 음식인 김치를 만들었는데, 간을 보겠다며 조금씩 먹다 결국은 양념이 모자라는 등 재미있는 일이 많았다. 그렇게 점심을 먹고 헤어지는 공항에서 우리는 다음을 기약하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나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게 좋다. 외국 친구들을 만나고, 엽서를 쓰며, 숙제할 때 도움도 받는다. 이런 나를 보고 가끔씩 친구들은 영화같다고 말한다. 아주 어렸을 때 일본인 언니 요시미와 얼마간 생활해본 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의 교류를 통해 나는 외국인과의 교류가 꼭 영화같지만은 않다는 것을 실감한다.

사워하러 들어가서 한 시간을 꿈지력대던 일, 말하려다가 단어 뜻을 몰라서 사전을 뒤지다 결국 포기한 일, 대화를 모두 통역해줄 수 없어 버거웠던 것, 아자 뻘다고 생긴 갈등 등 많은 일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게다가 때때로 나는 그녀를 외국인이 아니라 아기취급을 하고 있던 것이다! 어디까지 챙겨줘야 하는건지 막막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가 헤어지는 순간에 울며 '마따 아이마쇼!(다시 만남시다)'를 외쳤던 것은 그 모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 결코 짜증난 다거나 불쾌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힘들다. 몇 백 혹은 몇 천 년을 이어온 습성이 그 객체 하나하나에도 여실히 박혀있는데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하지만 나는 '마음'을 믿는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이해해줬던 그 마음, 그것을 난 사랑한다. 비록 한 시간이나 걸렸지만 사워 후 머리카락을 비롯한 자신의 흔적을 모두 정리하고 나왔던 그 배려,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지만 말해주고 싶어서 서로가 수십 번씩 사전의 버튼을 눌러 댔던 그 열정, 재치 있는 바디랭귀지에 감탄했던 일들, 친구들이 모두 공부하고 있을 때 오로지 나만이 경험할 수 있었던 그 2박 3일간의 뜨거운 시간들...

이젠 정말 어느 나라 건 홀로는 살아갈 수 없다. 어차피 함께 해야 할 친구들이라면 그들에게 먼저 '안녕!' 하고 웃어 보이는 건 어떨까.

글 _ 정진영 (제5기 청소년웹진 MOO학생기자 / 연수여고 2)

해양스포츠를 통한 한·일 청소년 교류

일본 시가현(滋賀縣) BSC Water Sports Center 총재 이노우에 요시오씨가 지난 9월 30일(금) 오전 10시30분 시장 접견실에서 인천시장과 한·일청소년교류에 관해 한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노우에 총재는 "인천지역 청소년들과 해양스포츠를 통해 시가현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기를 희망한다."고 얘기했다. 이에 시장은 "역사적·정치적으로 가깝고도 먼 이웃끼리 청소년 관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깊은 우정을 나누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이번 방문은 '한·일 우정의 해'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8월 일본 시가현에서 개최된 제2회 한·일청소년 교류에 인천지역 스카우트인천연맹 노틀담 지역단 청소년 8명이 시가현 청소년 32명과 함께 해양캠프에 참가한데 따른 감사를 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문에는 Asahi TV의 PD 타케다 히데유키 씨와 감독 후세 토시히로 씨가 동행해 송도국제도시 등 인천의 곳곳을 취재했다.



뉴델리 반드시 뛰어 넘는다

지난 9월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성황리에 마친 우리시는 그 열기가 식기도 전에 2014년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분주하다. 스포츠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 우리시는 시민과 함께 경기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유치희망을 연 광저우 총회

지난 4월 대한올림픽위원회(KOC)는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후보도시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시를 위원총회에 상정했다. 우리시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선수'가 된 것이다. 그 후 우리시는 6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에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신청계획서를 공식 제출했다. 인도의 뉴델리도 유치신청을 함으로써 곧바로 2파전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인도는 세계 4대문명의 발상지이자 세계에서 7위의 국토면적을 자랑하는 10억 인구의 나라이다. 또한 인도의 뉴델리는 아시아경기대회의 발원지로 1951년 제1회와 1982년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를 두 차례나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현재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사무총장이 인도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만만치 않은 경쟁 상대임이 틀림없다.

우리시는 대회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8월 13명으로 구성된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단을 조직했다. 유치단은 지난 9월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첫 번째 홍보채널로 삼아

일반시민은 물론 아시아 각국의 임원과 선수단을 상대로 유치상황을 널리 알렸다. 또 9월7일부터 9일까지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제24차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총회에 참석해 대회 유치설명회를 통해 본격적인 홍보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총회에는 인천 시장을 비롯해 박승숙 시의회의장, 신용석 아시아경기대회유치위원장, 아시아경기대회유치단 및 대한올림픽위원회 관계자 등 12명이 대표단으로 파견됐다. 45개국 올림픽위원들을 상대로 시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나서 '평화의 제전, 꿈의 제전, 하나 되는 아시아'를 슬로건으로 우리시의 유치당위성을 적극 설명했고 위원회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출발점에서부터 뉴델리보다 우리가 한발 더 앞선 것이다.

스포츠 메카를 꿈꾼다

우리시는 2002년 월드컵과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등 그동안 크고 작은 국제스포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왔다. 아시아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를 심고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아시아경기대회 역시 성공적인 유치를 확신하고 있다. 최종 개최지는 2006년 12월 카타르 도하 아시아경기대회 기간 중에 열리는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총회에서 결정된다. 우리시는 앞으로 1년 남짓한 기간동안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회원국간에 열리게 될 동아시아대회와 중앙아시아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와 행사에 유치·홍보단을 파견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또한 2006년 시정 캐치프레이즈를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유치'로 내걸고 이를 위해 국내외 안팎으로 전력을 다해 2014년 문학경기장의 성화가 다시 타오르기를 기대하고 있다.

글 _ 김미희 (편집위원 · meehee75@incheon.go.kr)



길영선 아시아경기대회 유치단장과의 3문3답

• 뉴델리에 비해 우리시가 갖고 있는 유치 경쟁력은?

우리의 강점은 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고 동북아의 관문도시라는 측면과 국제도시의 기반시설을 갖춘 선진도시라는 점이다. 또한 대회가 치러지는 계절이 경기진행과 관광에 적합한 기후를 보이는 것도 어드밴티지 중 하나이다.

• 대회유치를 위해 숨겨진 전략이 있나?

아시아경기대회가 평화를 추구하는 스포츠 제전인 만큼 '인천과 평양의 아시아경기대회 공동개최'라는 히든카드를 가지고 있다. 북측에서는 지난 6월 공동개최에 이미 합의한 상태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남북 공동개최로 인천이 평화의 도시임을 적극 강조하고 아시아경기대회가 아시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다.

•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2002년 문학경기장에서 월드컵 16강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인천시민의 결집된 힘이다. 다시 한번 그 힘을 발휘할 때가 온 것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자 장 면 도 순 서 가 있 다

인천-중국의 날 문화축제가 지난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자유공원에서 열렸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에 용이 날고 사자가 뛰었습니다. 이국적인 용춤과 사자춤에 사람들은 탄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동상이몽. 최근 몇 달 간 '동상' 하나에 대한 '이몽' 때문에 편가르고 서로 욕설하고 치고받던 자유공원에 오랜 만에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공원 아랫마을 북성동에서는 행사 내내 고소한 춘장 볶는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 중 차이나타운 내 30여개의 중국식당에서 15만 그릇 이상의 자장면이 팔렸다고 합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본고장의 자장면을 맛보기 위해 40~50여 미터씩 줄을 서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순서를 기다리느라 배는 고프고 발은 아팠지만 모두들 즐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번 축제에서 우리 모두 얻은 교훈은 '자장면도 순서가 있다'라는 불문율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순서를 지키면 서로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자장면 한그릇 때문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글 · 사진 _ 유동현 (편집위원 · batubatu@incheon.go.kr)

그녀의 아다는 움직이는 인천 홍보판

밖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하지만 고향에 대한 사랑이 이 정도면 포상감이 아닐까. 미국 캘리포니아 LA 북쪽에 위치한 밴추라 카운티에 사는 임성숙(46)씨는 자신의 '애마'인 벤츠차에 'INCHEON'이라는 낙인을 당당히 찍고 다닌다. 올해로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펼친 지 25년이 되는 임씨는 한국을 떠나는 날부터 지금까지 한시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다고 한다.

인천에서 태어나 동암초·영화여중·인일여고를 다니고 이화여대를 졸업한 후 부모님을 따라 미국 이민길에 올랐다. 물리학을 전공한 그녀는 미국의 리튼(Litton)사에 입사해 10여년 간 항공기 네비게이션 엔지니어로 미국 젊은이들과 당당히 겨루며 성공적인 직장 생활을 했다. 직장 생활 중에 남편인 프리드만(46)씨를 만났고 현재 레이첼(14)과 벤자민(11)을 두고 있다.

직장을 그만 둔 후에는 LA에 있는 남가주 한국학교 교사로서 동포 2세대들에게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일깨워 주는데 힘을 쏟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임씨는 학생들에게 틈만 나면 인천에 대한 자료를 학습교재로 사용하며 인천에 대한 홍보에도 열심이다. 한국학교 선생님답게 자녀들에게도 한글이름을 지어주었다. 레이첼은 '예슬', 벤자민은 '영석',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순종 진돗개의 이름을 '한미'라고 지을 정도이다.

미국에서는 자신의 차량번호판에 자신이 좋아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5년 전 자신의 벤츠를 구입했을 때 주저 없이 'INCHEON'이라는 번호판을 붙였다. 이웃들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고향 인천을 알리기 위해 열변을 토하기 일쑤였다. 임성숙씨는 현재 본지 <굿모닝 인천> 영어판의 번역가이기도 하다.



<굿모닝 인천>의 구독자는 세계인입니다

인천의 뉴스, 정보, 문화 그리고 추억과 비전을 담은 <굿모닝 인천>은 한글판 뿐 만 아니라 영어·중국어·일어로 부분 번역돼 전 세계 100여개 국가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갖춘 인천은 한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세계로 뚝뚝 뻗어 나가고 있는 인천의 모습을 <굿모닝 인천>에 담아 세계 어느 곳이든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향 인천을 떠나 지구촌 곳곳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인천인이나 외국인들에게 <굿모닝 인천>을 보내고 싶은 분은 저희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구독문의 및 신청 _ (T) 032-440-2070 (F) 032-440-2079



엄마와 함께 문화재 탐방

© 창영초 교사 · 영화초 본관동 · 기독교사회복지관

학교종이 땡땡땡... 역사산책 떠나자

배다리 고서점 거리에서 일방통행 길을 따라 200m쯤 들어가면 왼쪽 언덕에 창영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그 옆에 영화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땅의 생김새가 쇠뿔(牛角) 같다고 해 ‘쇠뿔마을’이라 불리던 창영동은 구한말 개항장 제물포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목으로 교통의 중심지였다. 우리나라 철도가 처음 개통되었고 그 주변에 미국선교사들이 ‘베이스캠프’를 치고 선교활동을 떠나갔던 곳이다.

탐방에 참여한 엄마 김영미(42)씨는 창영동에서 태어나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유치원을 다녔고 창영초등학교 제65회 졸업생이다. 그녀는 자신의 유년시절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혀 있는 옛 동네를 아들 오정민(마장초 5)의 손을 잡고 흑백사진을 뒤로 넘겨보는 듯한 ‘즐거운 역사기행’을 했다.



인천 최초의 조선 공립학교 <창영초(구)교사-유형문화재 제16호>

창영초등학교는 1907년 조선 사람들이 모은 자본으로 세워진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인천 최초의 공립학교이다. 그 당시 학생들의 연령은 5세에서부터 24세까지 매우 다양했고 1910년 3월 26일 첫 졸업생 18명을 배출한 이후 2005년 2월 제 95회 졸업생 158명을 배출했다.

하루 전날 사전답사를 할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해 온 임명미(42) 문화유산 해설사는 근대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냈다. 학교증축으로 감쪽같이 달라진 건물 벽체를 손으로 가리켰다.

“1922년에 낡은 건물을 헐고 현재의 규모로 지었는데 일제시대 전반기 건물로 지금도 개교당시 학교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지요. 붉은 벽돌로 길게 지은 이 건물은 一자형의 단순한 구성이면서 면과 선을 돋보이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붕에는 아래 방을 밝게 하기 위한 지붕창을 두었어요. 현관과 1층 창문은 반 아치(Arch) 무지개 모양이라 예쁘죠? 2층 창문은 수평으로 마무리한 것이 초기 근대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민이 엄마는 “그래 여기예요. 제가 1층 이쪽 교실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졸업식 땐 강재구 소령 동상 밑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다 그대로네? 돌계단도 나무도... 그렇게 커 보였던 운동장은

운동회나 행진 할 때 걷기 힘들었는데 이젠 근시안에 다 들어오네요. 참 작아졌어요.” 그러자 정민이는 “엄마가 커지신거죠”했다. 플의 바늘침 같은 솔잎이 날아와 쿵 찢러댄 느낌이다.

교정엔 인천에서 최초로 일어난 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3·1독립운동 ‘인천지역 발상지’ 기념비가 세워져있다. 삼일운동을 비롯해 6·25전쟁 등 역사의 흔적이 교내 곳곳에 남아 있는 학교는 교육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었던 각종 유물들을 수집해 분류하고 정리해 박물관 성격을 띤 학교 역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정민이 엄마는 학교 뒤뜰에 동물사육장이 있었다고 옷깃을 잡아끈다. 흔적은 오간데 없고 지금은 학교건물 증축을 위해 공사가 한창이다. 일행은 담을 끼고 길모퉁이를 돌아 옆에 있는 영화학교로 향했다.



창영초등학교와 영화학교를 자세히 살펴보면 건물구조가 틀리다. 창영은 모든 것을 중앙을 중심으로 배치해 일본인들이 감독하기 효율적이게 만든 일자형인데 반해 영화학교는 미국인 선교사들이 지은 것으로 벽체가 들쭉날쭉 입체감있게 지어졌다. 그 입체감을 눈여겨보면 통로를 십자형(十字形)평면으로 계획해 기독교 정신을 담으려는 의도를 볼 수 있다. 교실 7개, 별실 5개가 있다. 3층은 본래 예배당이었으나 당시 여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이곳에서 체조를 했다.

영화학교는 처음엔 인가를 못 얻었다. 일본인들이 조건을 걸었는데 ‘일본인 교사를 채용해라, 일본어를 가르쳐라, 설립자를 미국인 선교사로 하지 말고 조선인으로 해라’ 등이었다. 게다가 졸업생이 상급학교로 가거나 할 때 학력인정을 안 해 주는 등 불이익을 주자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8년 동안 버텨오다가 1923년 9월에 보통학교로 인가를 받아 새로이 개교기념식을 가졌다.

문화유산 해설사는 풍금에 내려앉은 먼지를 닦았다. 긴 한숨 같은 것이 건반 낮은 음을 건드렸다. 발로 꺾꺾 누르자 풍금은 오랜만에 공기주머니를 부풀렸다.

“당시 풍금이 인천에 3대가 들어왔지요. 내리교회, 영화학교, 강화중앙감리교회에 두었는데 1918년 졸업생 35명이 졸업기념으로 기증한 것입니다.” 이교사가 말하는 사이 정민이 엄마가 어느 새 앉아 ‘술술라라 술술미 술술미미레’ 풍금을 올렸다. 일행은 거침없이 노래를 따라 불렀다. “학교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학교 영화학당

〈영화초 본관동-유형문화재 제39호〉

내리교회가 선교의 한 방편으로 신식학교를 세운 것이 영화학교다. 1892년 존스 목사 내외에 의해 설립됐고 이후 8월 사립학교로 영화학교가 탄생한다. 지금의 영화정보여고와 영화초등학교가 영화학당에서 출발했다. 한국여성운동계의 큰 별로 이화여자대학교 총장을 지낸 김활란 박사가 바로 영화학교를 거쳐 간 인물이다.

“그 당시로는 인천이란 지역요건이 지식인은 별로 없고, 살기 위해서 몰려든 근로자들만 항구를 중심으로 북적뻐있었죠.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우리나라를 일본에 뺏기고, 배워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지요.” 해설사의 설명이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피아노멜로디가 울렸다. 운동장을 가로지르던 영화학교 이성진 국어교사를 우연히 만나 이 지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 뜻하지 않은 ‘역사가이드’를 만나 회색먼지가 쌓인 교실로 들어갔다. 천정이 부식돼 전등 주변으로 합판 잔여물이 둥그렇게 쏟아져 내려있었다.



‘선교베이스 캠프’ 여선교사기숙사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유형문화재 제18호〉

개화의 물결 속에 미국 감리교선교회를 비롯해 외국의 개신교 선교회에서는 경쟁하듯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다.

인천기독교사회복지관은 겐블(Gamblee)홈이라 불렀고 복지관 옆, 지금의 동인천 세무서 자리에는 남자선교사들의 사택이 있었으며 옛 한전사택에는 아펜젤러 선교사의 집이 들어섰다. 이곳은 100여 년 전에 감리교회 여선교사들이 숙소로 사용하던 고풍스런 르네상스 양식 건물로 1905년에 지어졌다.

동화 속에 나오는 과자집이나 아기돼지가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빨간 벽돌집 같다. 지붕은 맞배지붕으로 예쁜 삼각형 모양이며 창문은 조선시대 서원이나 사찰의 승방에서 사용했던 ‘용(用)’자 창호살 형태를 응용했고 가장 자리는 교살 등의 문양을 짜 넣어 우리 전통양식을 접목시켜 친근함을 준다.

정민이 엄마는 “제가 이곳 복지관 유치원을 다녔잖아요. 현관 나무계단에 앉아 선생님을 기다리기도 하고 잔디밭 예수탄생 말구유를 재현시킨 모형 앞에서는 인형이 갖고 싶어 엉엉 울기도 했어요. 잊고 살다가 여기 오니까 다 생각나네? 그런데 이곳에서 누가 살았어요?”

“그때 당시 평신도 지도자들을 이곳에서 교육시키는 장소로도 쓰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의 별장 휴양소로도 쓰였지요. 청일전쟁이후 신도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1895년 여자 전용 예배당을 세우게 되었죠. 선교지역이 넓게 확장되면서 제물포에서 황해도, 영종도, 강화, 남양, 덕적도… 부평, 김포를 활동지로 삼는데 무엇보다 시내로 가기가 편했을테고 서울 가는 경인선철도가 놓여져 있고 바다가 앞에 있어 배를 타기도 좋았으니 활약이 컸지요. 아예 배를 구해서 이동수단을 삼았다고 해요.”

그런데 1904년에 러일전쟁이 일어나면서 해상이 봉쇄된다. 배를 타고 전도 나갔던 여선교사들이 뱃길이 막히자 제물포를 중심으로 부평, 계산동… 내륙에서 선교활동을 펼쳤고 여선교사 5명이 숙식문제 해결을 시급히 요청하자 미국의 겐블 부인이 낸 헌금으로 이 건물을 지었다.

정민이는 신나는 토요일에 학교만 잔뜩 구경하고 가는 게 약간은 서운한 눈치다. “엄마가 다니던 유치원, 초등학교를 와 보니 좋아요. 우리엄마도 나만할 때가 있었구나 생각하면서 걸었어요.”

이번 호는 독자와 탐방지가 톱니바퀴처럼 아귀가 잘 맞아 즐겁게 타임머신을 탔다. 풍요로운 가을걷이다.

글 _ 조은숙 (부평사람들 기자 · eyagi9090@yahoo.co.kr) / 사진 _ 김성환 (자유사진가 · koin1@incheon.go.kr)

안전 먹거리로 입이 ‘싱글’ 몸이 ‘빙글’

수입 농산물에서 중금속, 기생충알, 환경호르몬 등이 검출돼 식탁에 비상이 걸렸다. 신선하고 안전한 식탁을 만들려는 주부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우리시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작목반과 생산자 단체가 여럿 있다. 우리시에 있으니 더 신선한 재료를 빨리 접할 수 있고 품질인증까지 받았다니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 일석이조다.

밥상의 주연 쌀

계양구 동양동의 너른 들판. 계양구가 행정구역상 인천으로 편입되기 이전에는 ‘김포평야’라고 불리던 곳이다. 임금님 수랏상에 올랐던 쌀이라니 맛에서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는 곳이다. 그 곳에서 맛은 물론이거니와 몸에도 좋은 먹거리를 길러보자는 사람들이 모여 ‘계양친환경쌀작목반’을 만들고 3년 전부터 친환경 쌀을 생산해 ‘엄마가 고른 쌀’이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들과 만나고 있다.

이 쌀은 재배 과정이 일반 쌀과는 확연히 다르다. 우선 모내기를 하기 전에 우리 몸에 해독작용과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알파게르마늄 영양제를 논에 뿌려서 ‘비옥한 옥토’를 만든다. 땅이 영양을 듬뿍 받아 원기왕성해졌으면 이제 좋은 씨를 뿌릴 차례다. 이때는 종이멀칭 기법이 사용된다. 생분해성 멀칭종이를 논에 입히면서 동시에 모를 심어 잡초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아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하는 것이다. 모내기 후에는 환경친화적인 생물인 왕우렁이를 논에 방사한다. 왕우렁이는 물속에서만 살아가는 잡식성 생물이라 물 아래 있는 어떤 풀이든 잘 먹어 잡초 제거에 그만이다. 또 사탕수수를 가공해 설탕을 만들 때 생기는 잔여물인 당밀을 유용미생물과 섞어 논에 넣는다. 이렇게 하면 미생물이 풀에 들어가 잡초를 말라죽게 하는 것이다. 논에 우렁이와 미생물이 살고 있으니 제초제나 농약을 쓸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비료 역시 친환경 유기물질로 만든 것만 사용한다.

친환경 농법은 서로 이득해 있는 논이 함께 해야 진정한 친환경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22명의 작목반원들은 농사철 내내 서로서로 감시의 눈길을 늦추지



소임을 마친 논바닥의 왕우렁이들

않는다. “한 번이라도 농약을 쓰는 경우에는 작목반 탈퇴는 물론 몇 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도록 서약서까지 받았다.”는 것이 이호형 작목반장의 설명이다.

이렇게 철저한 친환경 공정을 거쳐 생산된 ‘엄마가 고른 쌀’은 인천의 각 학교에서 급식용으로 사용되고 일반 소비자들과도 만난다. 5kg 1포단위로 계양농협(515-1611~4)에서 19,500(택배비 포함)원에 판매되며 전화로 주문하면 집에서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인천공항이 있는, 섬이 아닌 육지로 영종도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종도는 좋은 쌀, 좋은 농산물이 나는 반농반어의 마을이었다. 지금도 영종도와 용유도의 열 두세 농가에서는 친환경섬마을작목반이 ‘영종쌀’이라는 상표에 친환경 품질인증 스티커를 붙인 쌀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이 생산하는 쌀은 바로 ‘오리농군’의 힘을 빌어서 재배한 쌀이다. 오리농법은 논에 오리를 방사해 쌀을 재배하는 방법이다. 모내기를 끝내고 새끼 오리들을 논에 풀어 놓으면 오리들은 벼 잎에 붙어 있는 해충의 알이나 벼멸구는 물론 메뚜기들을 먹이 삼아 살아간다. 논 이랑을 휘젓고 다니다 보니 물 속에 산소도 충분히 공급돼 벼의 생육을 활성화 시켜준다. 오리가 논에 살고 있으니 화학비료를 쓸 수 없는 것은 물론 제초제 등을 사용하지 못하니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것이다. ‘영종쌀’에 품질인증 마크가 붙은 것은 학교급식용으로 전량 소비된다. 출하되는 양이 적어 일반 소비자들의 손에 전달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하지만 생산량이 늘어나면 조만간 소비자들도 맛있는 영종쌀을 맛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친환경섬마을작목반의 계획이다.

강화에서는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97년부터 6천여평의 논에서 청둥오리농법을 이용해 농사를 지어왔으니 벌써 9년째에 이른다. 친환경농업이 조금씩 강화 전역으로 퍼져나가 지금은 80여만평에서 청둥오리농법, 우렁이농법 등으로 친환경쌀 1만여 가마를 생산하고 있다.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은 물론이다. 언제나 ‘선구자’의 길은 고행의 길이듯 97년과 98년에는 친환경쌀을 판매할 곳을 찾지 못해 고생했지만 지금은 전량 우리 인천의 학교급식에 공급돼 우리 아이들의 점심 식탁에 오르고 있으니 여간 다행이 아니다.

밥상의 조연 채소

계양구 동양동에는 친환경으로 쌈채류를 생산하는 농가들이 모여 있다. 상추, 청겨자채 등을 재배하는 이들 5개 농가와 유통팀 5명이 모여 ‘해들피유기농농법인’을 만들었다. ‘해들피’라는 상표가 붙은 국거리 재료는 학교 급식을 통해 어린이들의 점심 식탁에 오르고 있다. “유기농으로 채소를 재배하면 환경호르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것은 물론 야채 하나하나의 맛이 제대로 살아있어 월등하게 맛이 뛰어나다.”는 것이 박동현 해들피유기농농법인 대표이사의 말이다. 한편 부개동에는 해들피유기농 어울터(506-6208)라는 직거래매장을 운



1 이호형 작목반장이 추수를 앞둔 논을 둘러보고 있다 2 계양농협에서 판매되는 ‘엄마가 고른 쌀’ 3 친환경 모내기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다.



밥상의 에필로그 과일

남동구 수산동에는 배 농가가 여럿 자리잡고 있다. 남동배라는 이름을 붙여 판매하는 배는 당도가 높아 아름답은 인기를 끌고 있다. 남동배작목반 중 4농가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생산하자는 뜻을 모아 '수정산야 영농법인'을 만들어 생산한 배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것이라 특히 몸에 좋다. 배를 친환경으로 재배하려면 수정을 시킬 때 일

일이 붓으로 하고 벌레도 손으로 잡아야 한다. 또 유기물질을 직접 발효시켜 살충제로 쓰니 수고가 서너 배는 더 필요하다. 자재도 직접 만들거나 외국 것을 수입하고 재포장해 사용하니 비용 역시 만만치 않다. 농약도, 성장촉진제도 치지 않다보니 어린아이 머리통만한 배가 달리는 경우는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벌레가 먹었거나 못생겨서 판매가 어려운 과일도 부지기수다. 그런 배는 '수정산야' 배즙으로 재탄생한다. 무농약 배로 짜낸 즙이니 몸에 좋은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 이 배즙은 초록마을에서 1박스 4만원에 불티나게 판매된다. '수정산야'라는 이름이 붙은 배는 백화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일반 배보다 두 세배 비쌀 때도 있지만 건강을 먼저 챙기는 사람들이 선뜻 구매하는 상품이 되었다.

영화 실미도로 유명해진 섬 무의도의 실미원 농장에서는 친환경 포도가 탕글탱글 영근다. 실미원 농장주 신순규 씨는 유럽에서 연수를 받고 1997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포도 수정재배를 시작했다. 2000년에는 경인지역에서는 최초로 무농약 인증을 받았고 국내 최초 수정재배로 2002년에는 신지식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친환경 재배 역사가 긴 만큼 입소문으로 전해져 실미원의 무농약 포도는 예약 판매될 정도로 '귀하신 몸'이다.

글 _ 정경애 (편집위원 · happyjka@incheon.go.kr)
사진 _ 김정식 (자유사진가 · jsjsm@incheon.go.kr)

알고 먹으면 더 건강하다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및 기준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은 유기농산물, 전환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네 종류로 나뉜다. 친환경 농업을 시작해 첫해는 저농약농산물이 되고 다음으로 무농약, 전환기유기농산물, 유기농산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저농약농산물 화학비료 등을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2 이내 사용하고 잔류농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의 1/2이하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시비량의 1/30이하 사용

전환기유기농산물 1년 이상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유기농산물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

영해 일반 소비자들과도 만나고 있다. 해들피에서 직접 생산해 '전환기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엽채류의 판매는 물론 직접 생산하지 않는 품목은 지방에 있는 유기농 생산 단체와 연계해 공급을 받고, 유기농 면류와 과자, 음료 등도 판매하고 있다.

남동구 수산동의 3만3천여평에 이르는 밭에서는 농약을 전혀 치지않은 쌈 채소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다. '맑은샘유기농연구회'의 11개 농가에서 친환경으로 재배를 시작한지 벌써 6년째에 이른다. 지금은 '무농약' 인증을 받은 40여 가지의 쌈 채소들을 생산해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다. 생산자의 실명을 붙인 쌈 채소들은 시민들의 식탁에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고 있다.

'한마음농장'은 좀 특이한 곳이다. '전국 최초의 광역 자활영농공동체'라는 타이틀이 그렇고 상추와 토마토, 고추 등 다양한 작물을 친환경으로 재배한다는 것 또한 그렇다. 어려운 생활형편의 사람들이지만 많이 팔고 잘 파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생산하고 좋은 상품을 팔자는 마음으로 친환경 인증은 물론 오존처리한 음이온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해 소량고품질의 야채를 재배한다. 지난 봄에는 친환경 토마토를 생산했고 지금은 상추 등의 쌈 채소류가 한마음 농장에서 자라고 있다. 이제 곧 다가올 김장철에는 농장 옆에 판매장을 마련하고 직접 재배한 배추, 무 그리고 직접 재배해서 말린 고추로 김장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016-315-7851)

밥상의 특별 게스트 버섯



건강채소의 대표, 버섯을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이들이 있다. '영종버섯작목반'은 느타리, 새송이버섯에 약을 치지 않고 재배한다. 친환경으로 재배한 버섯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고 맛과 향이 좋은데다 영양소의 함량이 높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유혹한다. 또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아 신선도가 오래 지속된다. 영종버섯작목반이 재배한 버섯은 여느 버섯처럼 농산물공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소비자들의 손에 전해진다. 따로 유기농 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은 구별하기

어렵겠지만 '영종버섯작목반'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있으면 일단 안심하고 구입해도 좋겠다. '계양버섯영농조합법인'은 느타리, 표고 등의 식용버섯에서부터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는 상황버섯, 동충하초 등의 약용버섯과 버섯 엑기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버섯을 망라해 생산, 재배, 판매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계양버섯은 서울 유명 백화점 매장에서조차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높다.

건강채소의 대표, 버섯을 친환경으로 재배하는 이들이 있다. '영종버섯작목반'은 느타리, 새송이버섯에 약을 치지 않고 재배한다. 친환경으로 재배한 버섯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고 맛과 향이 좋은데다 영양소의 함량이 높아 소비자들의 입맛을 유혹한다. 또 인공첨가물을 넣지 않아 신선도가 오래 지속된다. 영종버섯작목반이 재배한 버섯은 여느 버섯처럼 농산물공판장에서 경매를 통해 소비자들의 손에 전해진다. 따로 유기농 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은 구별하기

고수익 환상 버리세요

부평에 사는 주부 A씨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판매원의 권유로 다단계업체 B사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100만원짜리 건강보조 기구를 신용카드 할부로 구입하였다. A씨는 며칠 후 구입철회의사를 회사측에 통보하였고 회사측에서도 매출취소를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A씨는 지금도 매월 10여만원씩 사용하지도 않은 물품의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C씨는 수습기간동안만 매출을 채우면 직원이 될 수 있다는 D정수기업체지부의 설명에 친인척 집을 돌며 열심히 제품구매를 부탁했다. 이같은 적극적인 판매로 C씨는 영업실적이 우수하다며 상장까지 받고 승급하였으나 이후에도 여전히 직원은 될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당판매를 계속해야 했으며,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본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납한 금액이 3,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실업률 증가 등 최근의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악용하여 실직자, 미취업자, 주부 등을 노리는 다단계 피해사태가 늘고 있다.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구인광고를 게재하거나 실적이 좋으면 정식사원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해 취업 및 부업을 희망하는 선의의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불법적인 다단계판매회사로 인한 피해가 날로 늘어가고 피해액도 상당수에 이르지만, 판매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자신이 투자한 돈을 보충하기 위해 또 다른 판매원들의 가입을 강요하는, 즉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특성 때문에 그 피해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방문판매업으로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와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행위를 하는 신종 방판업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특히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 이후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불가능해진 상당수의 영세 피라미드 업체들이 신방판으로 전환하면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업체들은 자신이 판매한 것에 대한 수당뿐만 아니라 자신이 모집한 하위판매원의 매출 실적까지 자신의 수당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다단계식 판매방식을 가지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다단계판매는 판매원의 구성을 3단계 이상으로 보기 때문에 다단계에 따른 규제 및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우수한 제품을 통한 합리적인 소비네트워크 육성보다는 연고에 의한 사람장사에 치우치고 있는 다단계 판매 회사가 아직도 상당수이며 이러한 악덕 사업자에 의해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돈 잃고 사람마저 잃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세계적인 다단계업체인 A사의 한국법인이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한 2004년 후원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이 회사 전체 판매원 749,727명 중 47%인 351,178명이 후원수당을 지급받았으며, 이들이 받은 1년 평균 수당은 656,397원, 월평균 소득은 54,699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상위 1%미만의 사람들이 연 4,0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1%이상 3%미만은 연 635만원, 3%이상 6%미만은 연 2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받고, 6%이상 10%미만은 연 77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고 있으며, 10%내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수익은 연 26만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실제 다단계 판매원이 되어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극히 한정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은 고수익의 환상만을 쫓을 뿐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제공 _ 인천시 소비자생활센터(442-9872, consumer.incheon.go.kr)

‘ASA80 노안수술’로 돋보기 안녕~

글 _ 조범진 (한길안과병원 부원장 · 503-3322)

가장 흔한 노안 교정 방법은 가까운 물체나 작은 글자를 볼 때만 돋보기를 착용하고 멀리 볼 때는 벗는 것이다. 썼다 벗었다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요즘은 안경렌즈를 다초점으로 만들어 거리에 관계없이 모두 잘 보이게 하는 다초점렌즈를 사용하기도 한다. 편리하지만 적응이 쉽지 않아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근본적인 노안교정을 위해 그동안 안과학계에서는 여러 수술방법을 이용해 왔다. 라식 또는 라섹 수술이나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한 쪽 눈을 근시상태로 만들면 그 눈은 가까운 곳을, 반대편 눈은 먼 곳을 잘 보게 되므로 돋보기 없이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진다. 다만 일부 환자에서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한다.

눈에서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를 백내장 또는 다른 이상 질환으로 제거했을 땐 제거된 수정체 대신에 특수한 인공수정체(다초점 수정체, 조절성 수정체)를 그 자리에 넣어준다. 특히 자동조절 인공수정체 삽입술인 1CU는 근거리와 원거리 시력을 높이는 동시에 노안까지도 해결해주는 시술이다. 단, 특수 수정체는 외국에서 수입돼 수술비용이 비싼 것이 단점이다.

특수레이저를 이용한 ‘레이저 공막절제술(LAPR)’도 있다. 눈의 검은 동자와 흰자위의 경계부분에 해당하는 공막부위를 특수레이저로 절개해 가까운 곳도 볼 수 있도록 눈의 조절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홀미움레이저를 이용해 한 쪽 눈을 근시로 만들어 가까운 글을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모노비전’ 방식도 사용된다. 하지만 이 수술법은 FDA승인을 받지 못했다. 또 2~3년이 지나면 노안이 심해져 잘 안 보이게 되고 추가교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ASA80 노안수술은 기존의 라식이나 라섹 등 굴절교정수술과 원리가 같은 레이저 각막수술이다.

ASA80은 0.7mm 정도의 미세한 가우시안 빔을 조사하는 MEL-80 장비를 이용해 수술한다. 환자의 시력 상태에 따라 엑시머 레이저로 각막 표면을 비구면이 되도록 변형시켜 근거리를 볼 때는 각막 중심부로, 원거리를 볼 때는 초점을 깊게 해 어느 곳을 볼 때나 잘 보이게 하는 수술이다. 각막 최상층의 피부세포층을 벗겨내고, 각막 중심부를 레이저로 다듬은 후 특수 냉각술을 적용해 마무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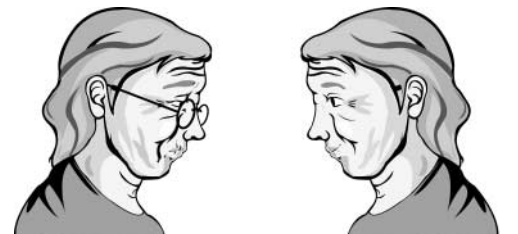
각막을 최대한 얇게 벗겨내므로, 수술 후 부착하는 콘택트렌즈를 2~3일 후 제거하면 각막의 상처가 쉽게 아물고 벗겨낸 상피세포도 대부분 재생된다. 수술 후 이틀 정도 눈에 이물감이 있고 더러는 약한 통증을 느낄 수도 있으나 곧 정상으로 회복된다.

ASA80은 원시뿐 아니라 노안이 있는 대부분의 근시, 정시 및 난시에도 적용된다. 근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2.0 이상에서 -11.0디옵터 미만을 대상으로 하나 -2.0 이내의 근시도 가능하다. 원시인 경우에는 +4.0디옵터 이내, 난시는 7.0디옵터 이내인 경우 수술할 수 있다. 또 정시안인 경우에는 환자의 희망에 따라 한쪽 눈씩 차례로 수술하면 된다. 단 백내장이 있거나 심한 당뇨병 및 시신경, 각막에 손상이 있다면 수술받기 어렵다.

지난 2003년 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독일에서 근시와 원시, 정시, 난시 환자 30명(53안)을 대상으로 수술한 결과 수술 전 평균 근거리 시력이 0.3, 돋보기량은 +2.21디옵터였던 것이 수술 후에는 돋보기 없이 근거리 시력 0.8~0.9로 개선됐다. 또 2003년 이후 현재까지 300명 이상의 노안 교정수술을 시행해 98%이상의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안은 물론 근시와 원시, 난시도 동시에 해결해주는 획기적인 수술이며 수술방법이 기존의 근시교정수술에 널리 활용되는 라식, 라섹과 같기 때문에 안전하고 정확한 것이 큰 특징이다.

원시와 노안

노안은 만40세 이상에서 생기는 눈의 노화현상으로 가까운 거리의 작은 글씨나 물체가 잘 안보이게 되는 것이다. 어두운 곳에서는 그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흔히 원시와 노안을 혼동하는데 원시는 어린이나 젊은 층에서도 나타나며 볼록렌즈 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하다. 반면 노안은 40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수정체의 탄력성이 없어져 수정체가 볼록해지는 조절현상이 감소해 멀리 보는 잘 보이지만 가까운 것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우편업무가 시작된 곳!

그림 _ 김신 (www.cyworld.com/sinitoon)



1884년(고종 21년) 서울의 우정총국이 인천에 우정분국을 개국했습니다.



이는 인천~한성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우편 업무가 시작되었음을 말해 주는 거죠



1884년 11월 17일
이날은 우리나라 우정사에 신기원을 연 날입니다.



종래의 역참제도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이때부터 민간인도 서신을 자유롭게 주고 받게 되었거든요. 그러니 당시에는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우편업무 시작 당시,
인천분국장은 월남 이상재 선생이었습니다.



서울~인천간 우편배달은 매일 오전 9시에
서울과 인천의 두 우체국에서 각각 집배원 한명이 출발하여
오류동에서 만나 우체낭을 서로 교환하였습니다.



이유는 서울에서 오류동까지 40리이고, 인천에서 오류동까지도 40리이라 딱 중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집배원의 걸음으로 시간당 10리를 가도록 했고, 우편망 교환 소요시간은 20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므로 각 우체부 왕복 소요 시간은 8시간 20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 인천분국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10년 후 고종 32년(1895년)
한성과 인천에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체사가 설치되었습니다.



당시 인천 외리 226번지

그후 3년뒤 1898년에는 내리 103번지로 이전했다가 일제에 의해 1923년 12월 중구 항동 6가에 현대식 2층 양관을 지어 이전했고 현재 (구) 인천우체국 건물은 인천시 유형문화재 제8호로 지정돼 보존되고 있습니다.



※ 프리랜서 만화가를 공모합니다.

2006년도 <굿모닝인천>의 만화 지면을 새로운 기획으로 꾸며주시길 만화가는 본지 편집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40-2071)

자장면 축제와 애국가수 서 희

특이하다고 말해야 할지, 속되게 괴짜라고 불러야 할지, 자신만만하다고 평해야 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왜 그런지 입이 붙어 얼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 '대한민국 싸우지 마' 같은 신랄한 세태 풍자 노래를 불러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 또 '아 고구려'라는 중국의 동북 공정에 대항하는 노래로도 유명한 가수라면 더욱 자신이 없다. 시 몇 줄 읽고, 눈이나 축축해지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둑어둑한 인류에게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주 뻑뻑하고 부담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의 첫 인상은 가수라기보다 적당히, 잔치 마당 같은 데서 사회를 보아 주는 그런 부류의 연예인 같았다. 그가 풍기는 자신만만함, 활기 같은것..., 이런 축제의 날만을 위해서 노래 부르고 사는 사람처럼 그는 한없이 행복해 보였고 몸속은 활력이 충만한 듯 느껴졌다.

저토록 자신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던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날씨는 가을 같지 않게 따갑고 땀은 겨드랑이를 적셨다. 그러면서 갑자기 입에는 전에 없던 버릇까지 생기고 말았다. 말을 더듬적거린 것이다.

“그럼 월요일에 만나 뵙는 걸로...”

“아아, 그, 그래요.”

자기가 바빠, 혼한 말로 자신이 먼저 약속을 핑크 내는 것이어서 그가 딱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오히려 반대쪽 사람이 더 안심이 되어 얼른 그러자고 대답을 한 것이다. 그러고는, 그는 틀림없이 못 보았을 것이지만 그의 머리 뒤쪽 하늘에, 그 순간 무리지어 남쪽으로 내려가는 기러기 떼를 흘끔흘끔 올려다보다가, 그것들이 지나간 빈 하늘에 대고는 들릴락말락한 작은 소리로 빨리 추워지거나 했으면 하는, 전혀 엉뚱한 발음을 해 버렸다. 그것은 아마 당황스런 기분과 함께 그 한금(寒禽) 무리가 만드는 가슴 서늘한 가을의 느낌 때문이었을 것이다.

가수, 서 희(徐熙). 지난 10월 8일, 그날이 토요일, 옥상 방에 앉아 있는데 하도 귀 밀이 시끄러워 밖으로 나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간 곳이 그 자장면 소용돌이였다. 그날은 '자장면 축제'라는 걸 벌여 놓고 중구 전체가 온통 뒤집어지도록 떠들고 노래 부르고 먹고 술렁거리면서 별 좋은 가을 하루를 신명나게 보내는 잔치날이었다. 거기 금색과 붉은색으로 요란하게 벽을 칠한 한중문화관 뜰에서 徐熙라는 예명을 가진 가수를 만난 것이다. 물론 그는 행사 사회자로도 유명하다는 것이었다.





작은 체구여서 금색 수를 놓은 연미복이 썩 잘 어울린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그는 자장면 먹기 대회 무대 위에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자장면을 먹이고 있었다. 그 무렵이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듯 한껏 고조된 분위기였다. 검은 테의 동그란 안경, 민족 지도자 한 분을 닮은 듯한 얼굴의 윤곽, 먼지와 피로에 젖어 있을 터인데도 마이크에 울려 나오는 신나는 목소리, 박수소리. 그의 주특기대로 그렇게 사람들을 소란과 웃음 속에 몰아넣고 얼마 있다가, 햇빛을 피해 그늘에 앉은 이쪽 사람들에게로 그가 온 것이다. 그런 그를 그냥 이런 장터 같은 곳을 흘러 다니며 사회도 보고 노래도 하는 가수려니...,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시간이 빠듯하다며, 몇 가지 팸플릿, 신문 스크랩을 내놓고는 재빨리 말했다. 1990년대 청와대에서 벌이는 어린이날 축하 행사 사회를 대통령이 두 번 바뀌도록 보았다는 이야기, 한 TV 방송의 ‘야! 일요일이다’ 프로에 1년 반 넘어 고정 출연을 했다는 이야기, 또 무슨 국제마라톤대회 오프닝 행사의 사회자라는 이야기, 레크리에이션협회 회장을 지냈다는 이야기, 그리고 끝으로, 사회도 보기는 하지만 실제 본업은 가수라며 제법 유명한 5개의 독집 디스크가 있다는 이야기를 줄줄 털어놓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 노래 중에는 바로 애국 정신을 고취하는 ‘아 고구려’ ‘간도 of 코리아’ 같은 노래도 있다고 열변을 토하는 것이다. 비록 오늘은 자장면 축제 사회를 보기는 해도 그런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였다. 잘못 보았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

정작 잘못 보았다고 생각한 때는 그가 장검을 빼어 든 순간이었다. 일자로 다문 입술, 안경 속에 가늘게 힘주어 뜬 두 눈, 그렇게 몇 초 동안 허공을 겨누더니 스르르 품새를 풀었다. 그리고는 그것이 그가 전하고자 하는 고구려인의 기상이라고 했다. 위의(威儀)! 그런 느낌 때문에 시선을 그에게 바로 둘 수가 없었다. 오히려 몸이 스멀거릴 듯한 이 엄숙을, 이 진공의 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 몰랐다.

그는 장바닥 가수가 아니었다. 그가 월요일에 다시 만나자는 말에 아무런 이의를 말하지 못한 채 그냥 동의를 하고 만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다. 그의 활기, 그의 기상, 그의 애국심, 얼굴 가득 행복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삶을 진정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저요? 대한민국에서, 긴장한 채 출발선에 서 있는 마라톤 선수들을 웃기는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월요일에 다시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물어야 하고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하나.

“본명은 서선택(徐先澤)입니다. 원래 인천 토박이이고요.”

부러운 생각이 들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고 이쪽이 던진 말에, 엉뚱하게 그에게서 나온 대답이었다. 학교는 서림초등학교 23회, 동인천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 동인천고등학교 10회 졸업생이라면 그의 나이도 이미 쉰을 넘은 셈이다.

“사실 학교 때부터 이런 끼가 있었지요. 왜 그때 JRC라는 학생 활동이 있었지요? 적십자 클럽 말예요. 거기 가입했는데 제가 클럽 친선분과장을 맡아 그때부터 두각을 나타냈지요. 특히 ‘오 몸부림스’라는 트리오를 결성해서 인기를 독차지했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두 명만 남아 ‘수수깡’이라는 듀엣으로 활동했지요. 인천서 리사이틀도 열고...”

수입은 들쭉날쭉이라고 한다. 그건 그럴 것이다. 이렇게 자장면 축제 같은 것이 일 년 내내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가족으로는 성장한 딸이 하나 있다고 한다. 그러니 뭐 걱정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제가 이름을 ‘서 희’로 바꾼 것은 고려 초기 서 희 장군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거란이 침입했을 때, 서 희 장군이 소손녕과 멋지게 담판을 지어 나라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지요. 물론 처음 서선택이라는 이름으로 가수로 나서니까 그 사람 사회 보는 사람이지 무슨 가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 고민하다가 서 희 장군 이름을 떠올리고 그 이름을 감히 흉내 낸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사랑 노래보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나라 대로의 철학, 즉 국민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위로와 위안을 주는, 끝끝내 그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남겠다는 것이다.

공인(公人)으로서 늘 표정 하나까지도 신경을 쓰고, 처신도 바르게 갖도록 노력한다는 서 희 씨. 그런 그가 든든하다. 낡고 작고 양철통처럼 생긴 다마스 자가용에 오르는 그의 뒷모습에서, 좀 때 묻은 표현이지만 ‘작은 거인’의 당당함 같은 것도 느껴진다. 이제야 처음 가졌던 그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제대로 바꾼다.

“기름값도 덜 먹고 이 차 하나면 탈의실, 분장실, 소도구실, 침실 겸용으로 안성맞춤이거든요. 전국 어디든지 달려가기 편하구요. 참, 다음 달에는 단양 온달 축제에 불러 갑니다.”

부산스럽게 시동을 걸고,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고, 손을 흔들고, 고개를 꾸벅 하며 환한 얼굴로 웃는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 말만은 꼭 다시 한 번 더 써 달라고 말한다. 저 말입니다. 정말 인천 사랑하고 나라 사랑합니다. 이쪽에서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를 따라 한 번 크게 웃는다.



글 _ 김 류(시인 · eoeul@hanmail.net)
사진 _ 김보섭 (자유사진가 · ericahkim@yahoo.com)

오랜만에 느낀 카타르시스

오래 전 투혼의 화가 오원 장승업의 생애를 그린 영화 '취화선'을 감명 깊게 보았다. 장승업은 어려서부터 신기가 서린 화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관찰력과 영감 등이 뛰어난 화가였다. 그래서인지 다른 중인 출신 화가들에게 늘 시샘거리가 되었다. 천민 출신의 오원은 그림으로 사람들을 계몽 시키거나, 훈계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했다. 그림은 그냥 그림으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다. 자신의 내부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을 주체할 수 없어 화폭에 혼을 쏟아내었던 장승업은 당시에 풍족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었음에도 이 모든 부귀와 영화를 뿌리쳤다.

장승업은 말년에 도자기 굽는 산골로 들어간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가마 불꽃 속에 투신하며 생을 마감한다. 죽음으로써 그는 추구하던 그림의 세계를 완성했는지도 모른다. 현실에서 그런 끊임없는 정진을 볼 수 없는 나에겐 커다란 카타르시스로 다가왔다.

강건우 (연수구 연수동)

'신데렐라 맨'을 보고나서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신데렐라 맨'은 마음 따뜻하게 다가왔다. 아빠로서 힘든 짐을 메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힘든 내색을 할 수 없다. 어느 날 큰 아들이 소시지를 훔쳐 오는 일이 생긴다. 아빠 브래독은 큰 아들의 손을 붙들고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 준다. 그리고는 한마디한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그리고 떨어져 사는 일도 없을 거라고 하면서 아들과 약속을 한다. 하지만, 날이 추워지면서 전기가 끊긴 지하방은 냉기로 싸늘하다. 아들은 열이 불덩이다. 손을 쓸 수가 없다. 엄마는 남편과 상의없이 친척에 맡기고 만다. 남편은 일을 끝내고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아이들을 찾는다. 아이들이 없는 것을 안 남편은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지고 급기야 사나이의 체면과 왕년 최고 복서의 자존심까지 내팽개치며 돈을 구걸한다. 전직 프로모터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이다. 이 장면에서 가슴이 싸~ 해졌다.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아빠들의 모습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오늘도 아빠들은 힘들지만, 가족과 아이들 때문에 오늘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상대 (부평구 십정동)

아빠와 '웰컴투 동막골'을 관람하고

얼마 전 비오는 토요일이었다. 초등학교 6학년인 나는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얼른 집으로 달려왔다. 왜냐하면 아빠와 함께 부평 CGV 영화관을 찾아가 '웰컴투 동막골'을 관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영화관에 들어가기까지 마치 소풍 갈때처럼 가슴에 설레임이 파도를 치며 넘실거렸다.

영화의 시대적 배경은 6·25 전쟁 때였고, 공간적인 배경은 강원도 숲 속에 있는 동막골 마을이었다. 우리 국군과 북괴군이 나타나 전쟁 분위기로 시작되었지만, 강원도 소녀의 우스꽝스러운 사투리가 관객들을 웃기면서 재미를 더해 주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내용이 있다. 그것은 동막골에 있는 우리 국군과 북괴군이 함께 어울려 친구가 되어 연합군과 싸우는 장면이다. 그렇다. 이번 영화를 통해 느낀 점이 두 가지 있다. 첫 번째는 우리 민족끼리 싸웠던 6·25전쟁은 참으로 어리석은 전쟁이었다는 점과, 두 번째는 한시 바빠 남북 통일이 되어 동막골의 순박한 주민들의 모습처럼 남과 북이 한데 어울려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아빠와 함께 영화관을 나오면서 '웰컴투 동막골' 관람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며 콧노래를 흥얼흥얼 불렀다.

신기철 (부평구 산곡3동)

'태극기 휘날리며'의 눈물

이 영화는 개봉 당시 1000만 관객 돌파라는 타이틀로 떠들썩했었다. 물론 나도 그 관객 중 한 명이었고 꽤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난다. 그러던 지난 추석 TV를 통해 다시 이 영화를 보게 되었다. 나는 물론 영화 내용을 알고 있었고 배우들의 대사 몇 마디 정도는 외울 수도 있었지만 브라

운관을 통해 가족과 함께 보는 이 영화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영화 속 '진태'의 애절한 연기와 마지막 장면의 노인이 된 '진성'의 눈물연기가 우리 가족 모두를 찡하게 하고 있을 때 나는 만약 영화 속 같은 극한 상황에 내가 놓이게 된다면 가장 잃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가족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늘 곁에 있어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만큼 큰 잘못이 또 있을까... 그 생각 끝에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실감나게 볼 수 있다는 말이 맞긴 하지만 가끔씩은 이렇게 가족들과 모여앉아 작은 브라운관을 통해 때지난 영화를 보는 것도 썩 괜찮은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혜영 (계양구 계산2동)

미션? 임파서블!

통 크루즈가 나온 유명한 영화... '미션 임파서블'... 이 영화의 최고 장면은 단연 통 크루즈가 천장에서 줄만 대롱대롱 매단 채 컴퓨터를 열고 해킹을 하는 장면이죠. 중학교 때 형과 저는 바로 이 장면을 재연하기 위해 빨랫줄이란 빨랫줄은 모두 뜯어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진 제가 빨랫줄을 몸에 동여메고 형이 그 밧줄을 위에서 잡고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진장 위험한 짓이었죠. 저는 눈물을 머금고 온몸을 밧줄로 칭칭 감았습니다. 형은 혼자서는 안 될 거 같아 친구 3명을 동원했습니다. 도합 4명의 남자는 밧줄을 잡고 저를 천천히 아래로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허거덩... 이건 완전 바이킹이나 자이로드롭 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떨어져서 그런지 더 무서웠습니다. 제 키 정도 되는 높이만큼 내려왔을 때 대문이 열리면서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허걱!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순간 형과 형 친구들은 깜짝 놀랐고 잡고 있던 밧줄을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죠. 그 참에 저도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 높은 곳은 아니라서... 그 날 형과 저는 어머니에게 무진장 꾸중을 들었죠. 하지만 참 재밌던 추억인 거 같습니다.

홍용혁 (서울 중구 중림동)

맨발의 청춘

어제 동생의 삼우제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렇게 종일 처량하게 내리는 비까지 내 가슴을 쓸어내린다. 결혼 전엔 그렇게 형을 따르는 따뜻했던 동생인데... 더 잘 살아보겠다고 증권에 손을 댔다가 결국 엄청난 빚을 지고 큰 병을 안고 괴로워하다 세상을 등졌다. 의리에 살며 용감하게 주어진 운명을 헤쳐나가지 못하고 먼저 간 것이 패심하다. 온 몸에 기운이 짝 빠져 금방 쓰러질 것 같다. 영화 '맨발의 청춘'에서 리어커에 실려가던 두 발이 떠오른다.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주는 의리있는 친구가 있는 죽음은 축복인 것 같다. 동생이 죽었을 때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정연경 (연수구 연수3동)

다음달 테마는 '연말', '크리스마스 풍경'

다음달 테마는 '연말'입니다. 기억에 남는 '연말'에 관한 에피소드를 보내주세요(200자 원고지 3매). 사진의 주제는 '크리스마스 풍경'입니다. 책에 실린 분께는 작은 선물(문화상품권 1만원권 1장)을 보내드립니다. 사진을 돌려받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_ 우편번호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시청앞길 25(구월동 1138번지) 인천광역시청 공보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인터넷 신청 : www.incheon.go.kr → 화면 오른쪽 '굿모닝인천' 배너 클릭 → 독자마당에 올려주세요. 마감은 11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시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하셔야 접수가 됩니다. (문의 _ 440-2072)

영화 '클래식' 첫사랑의 아득한 추억

짝사랑하는 사람의 심경을 가장 잘 표현해 낸 영화 중 하나가 '클래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지혜는 비를 피하기 위해 커다란 나무 아래에 서 있지요. 이때 상민이 나타납니다. 상민은 자신의 외투를 벗어 머리 위에 걸쳐 올린 다음 지혜에게 들어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비를 맞으며 도서관을 향해 달려가지요. 슬로우 모션과 멋진 영화음악, 그리고 생선 비늘처럼 튀어 눈부시게 빛나는 물방울까지... 그야말로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나중에 지혜는 알게 되지요. 상민이 일부러 매점에 우산을 두고 자신에게 다가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짝사랑하던 사람에게서 사랑의 동조를 얻어내는 순간의 기쁨은 정말 하늘을 날 듯 기쁩 겁니다.

최근에 한 남자 분이 제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하늘을 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 분은 제가 짝사랑하던 남자였거든요. 성실하고 매너 좋은 그 남자 분께 저도 프로포즈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당신을 생각하고 사랑할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등 돌리지 않게 언제나 날 깊이 꼭 감싸 안아주세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매번 나를 들뜨게 만듭니다. 우리 지금 잡은 이 손 놓지 말고 언제나 함께 해요!"

주영순 (부평구 청천2동)

가족사랑 확인시켜준 '안녕 형아'

9살 장한이는 세상에서 무서울게 없는 말썽꾸러기 천재이다. 가끔 아프다고 투정부리는 형 한별이는 최고의 괴롭히기 연습상대. 형제는 이렇게 싸우면서 정이 든다고 하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다. 어쩔 내 동생과 그리 닮았는지... 모처럼 우리가족은 가슴쿵쿵하고 감동적이며 때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가족간의 사랑이 묻어나는 '안녕, 형아'를 보며 서로의 존재를 감사했다. 말썽쟁이 장한이의 방귀사건과 동물사건으로 웃음을 자아내게 하더니 한별이가 입원을 하면서 생기는 감동과 눈물 그리고 잔잔한 웃음들이 가슴을 참 따뜻하게 해 주었다.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만도 참 감사함을 느꼈다. 서로 "영화 참 잘 됐다." "너무 감동적이다" "누나, 한별이가 불쌍해!" 눈물자국이 그대로 드러난채 영화관을 나오면서도 우리가족은 이런저런 감상평이 끊이지 않았다. 정말 오랜만에 감동과 재미, 가족사랑, 형제애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영화였다.

조해미 (부평구 삼산동)



이번 달 주제 ‘ 짹꿍 ’

이쁜 내 짹꿍

12년 전 유치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지금은 연락 할 길조차 없어서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인연이 된다면 다시 한번 만나고 싶다. 잘 지내고 있니?

오영미 (남구 학익1동)



누구꺼 일까요 ~

중학교 경주수학여행때 ㅎㅎ 여관 빨래줄에 걸려 있는 숙옷 들고서... 지금은 서로 결혼하여 한 남자의 아내~ 요즘 싸이월드를 통해 다시 연락해서 넘 반가워. 우리 항상 행복하게 살자~~

한은영 (강화군 강화읍)



꽃손이 짹꿍

우리는 우리반에서 제일 친한 짹꿍입니다. 그런데 수빈이가 이사갈 예정이어서 무척 서운합니다. 지난 봄에 같이 찍은 사진 속의 우리. 예쁜 꽃처럼 잊지않을거예요.

신경애 (남구 학익1동)



콩 한쪽도 나눠먹는 친구

옛말에 콩 한쪽도 나눠먹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했던가요?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 콩 한쪽을 나누어 먹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꼬마 친구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진속의 꼬마친구들 둘 다 7살 동갑내기구요 한 아파트에 살고 현재 같은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어때요 바로 요런 친구가 진정한 친구 아닐까요?

김다혜 (남구 주안4동)



우리는 둘도 없는 짹꿍

1학년 저학년 아이들 사진이랍니다. 친구라는 이유 하나로 서로 너무나 좋아하지요

김은정 (연수구 연수3동)



친구, 경쟁자, 짹꿍

수 년 전 두 아이와 함께 경주에 있는 화랑교육원견학을 갔을 때의 사진이랍니다. 두 살 차이인 누나와 동생은 자라면서 오랫동안 친구이며 경쟁자이며 짹꿍이 될 것입니다.

김정애 (서울 강동구 갈1동)

다정한 짹꿍

첫아이를 임신한 언니와 제 모습입니다. 친구처럼 지내는 저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에요. 제 짹꿍입니다.

차유미 (계양구 병방동)



영원한 짹꿍

철없던 고교시절 서로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 아파해주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던 내 짹꿍. 시간이 흘러 이젠 아줌마가 되어버린 우리들. 그래도 널 만나기로 한 날은 아침부터 설레인다.

이미희 (연수구 동춘동)



둘의 우정 영원하길 ~

한 동네에서 3달 차이로 태어난 제 아들과 친구네 딸아이입니다. 지금은 무럭무럭 잘 자라서 둘 다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춘기라 그런지 서로가 조금씩 어색하게 느껴지나봐요. 저는 앞으로도 둘 다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라고 또 둘의 우정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장정화 (남동구 고잔동)



가까머리 짹꿍

우리아들과 친구예요. 지금은 벌써 다자라 초등 6학년이랍니다. 이럴때가 있었다니... 옆에 있는 친구는 베트남에 유학 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으면 좋은 짹꿍이 되었을텐데...

전갑순 (부평구 심정동)

info box

제16회 시민문예대전 시민문예작품공모

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회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문학, 생활 속의 문학’을 표방하며 다음과 같이 시민문예작품을 공모합니다. 다양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의 삶의 본질과 상황을 상상력으로 엮어 기록한 우수한 작품을 기대합니다. 많은 응모 있기를 바랍니다.

- 부문 – 시·시조 : 5편 이상(매수 제한 없음)
 - 소 설 : 단편 2편(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 수 필 : 3편 이상(200자 원고지 15매 내외)
 - 아동문학 : 동시 – 10편 이상(매수 제한 없음)
동화 – 2편 이상(매수 제한 없음)

- 기간 : 10월 18일 ~ 11월 17일까지

(우편접수 시 17일 소인 유효)

- 접수처 : 우편 접수(우402-812)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4동 7-4 (문화회관 내 4층 문인협회)

- 주최·주관 : 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회

- 후원 : 인천광역시, 한국예술인총연합회인천지회,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 자격 : 등단하지 않은 대학생 이상 일반 시민(인천광역시 근접 시도 거주자 응모가능)

- 시상 : 부문별 대상 1명 상금 – 각 80만 원,
(소설 부문은 100만 원)

- 부문별 금상 1명 상금 – 각 30만 원

- 부문별 은상 1명 상금 – 각 20만 원

- 부문별 동상 2명 상금 – 각 10만 원

- 발표 : 11월 하순 예정(관내 일간지 발표 및 개별 통보)

- 시상식 : 12월 예정(관내 일간지 발표 및 개별 통보)

※원고는 반드시 워드프로세스 출력물(A4용지)로 제출해야 하며, 결봉에 <‘제16회 시민문예대전’ – 부문 응모작>이라 필히 밝힐 것. 결장에는 제목 외에 기재하지 말 것. 원고 말미에 별지로 주소, 우편번호,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휴대폰 포함), 이메일 주소 기입할 것.

문의 _ 한국문인협회 인천광역시회 (863-1797, Fax 876-1797)



2005인천국제디자인페어 열립니다

인천국제디자인 공모전 수상작 전시 및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해 디자인 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 디자인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지역디자인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2005 인천국제디자인페어 행사가 열립니다.

- 행사기간 : 10월 31일(월) ~ 11월 3일(목)

- 장 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전관

- 행사내용 : 인천국제디자인공모전 수상작 전시, 세계유명디자이너 작품 영상 관람, 인천디자인전문회사 작품전, 인천중소기업 디자인개발지원 제품전, Good Design 제품전, Success Design 제품전, 인천디자인포럼, 생활디자인 (네일아트, 인물캐릭터, 페이스페인팅, 헤나(일시문신) 등)

문의 _ 시 경제정책과 (440-2823)

국제라이온스협회 354-F(인천)지구 제1지역의 후원으로 토요일에도 급식을 실시합니다. 이에따라 백 여명의 저소득 어르신들이 토요일에도 따뜻한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의 _ 남구노인복지회관 (861-3001)

2005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됩니다

- 이번 조사의 특징**
 -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총조사 (제17차 인구총조사, 제9차 주택총조사)
 -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기에 제공
 - IT 인프라의 적극 활용을 통한 e-census 추진
- 조사기준 시점** : 2005년 11월 1일 0시 현재
- 조사대상** :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주
- 조사 실시기간**
 - 준비조사 : 10월 29일 ~ 31일(3일간)
 - 본조사 : 11월 1일 ~ 15일(15일간)
- 조사체계**
 - 주관기관 : 통계청
 - 실시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
- 조사방법** : 조사원 면접방식, 응답자 기입방식, 인터넷 조사방식 병행
- 조사항목** : 44개(전수 21개, 표본 23개 항목)

문의 _ 인천통계청 (460-2500)

2005년 11월 무료검진 안내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초 생활 수급자, 장애인 및 의료소외계층 (비인가 시설 수용인,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 등 시민에게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인가 시설에서는 의료원 방문 하루 전에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및 장소**
 - 11월 7일(월) ~ 11일(금) (5일간) 인천의료원 1층 (내과 1)
 - 11월 14일(월) ~ 18일(금) (5일간) 인천의료원 2층 (치과)
- 진료시간** : 오전 8시 30분 ~ 오후 4시
- 검진명** : 당뇨검사(내과1), 구강검사(치과)
- 검진항목** : 혈당 검사(내과1), 치아우식(치과)
- 검진인원** : 50명(내과1), 50명(치과)

문의 _ 인천의료원 총무인사팀 (580~6478, 580~6651~5)

시민 무료 사이버교육 사이트 오픈

인천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사이버 교육 사이트(인천사이버교육센터 www.cyber.incheon.kr)를 구축해 10월 4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오픈했습니다. 인천사이버교육센터는 인천시민 모두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평

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무료 사이버교육시스템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분야에 대한 어학 콘텐츠 및 컴퓨터, IT자격증, 안전 분야, 교양분야, 우리시대 석학들의 명강의를 동영상으로 만나는 지식강좌 등 총 100여개의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부가서비스로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어학과정, 카페, 학습 진단, 모의토익테스트, 자격증정보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인터넷만 가능하다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제공됩니다.

문의 _ 시 공무원교육원 (562-5816)

소래포구의 교통시설이 개선됩니다

소래포구의 노상주차장과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통해 시민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소래포구 인근 노상주차장 및 대중교통편의시설 정비 공사를 실시합니다.

- 공사기간** : 10월 4일~11월 3일
- 사업내용**
 - 노상주차장 정비 168면 (신설 104면, 구획정비 64면)
 - 버스정류장, 택시정류장 정비 : 각 1개소
 - 횡단보도 1개소 및 교통안전 노면표시 설치
- 공사내용**
 - ▷구간별 노상주차장 정비
 - 수협공판장 앞 : 51면 신설
 - 소래대교 하부 : 64면 구획정비
 - 신도로 주변 : 53면 신설
 - ▷버스정류장 이전 (20번 종점)
 - 위치 : 현재 버스정류장 맞은편으로 이동
 - 일반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차선규제블럭 설치
 - ▷ 시내버스 노선조정 (20번)
 - 변경전 : 풍림아파트 → 대양빌라 → 소래포구(U-turn) → 대양빌라 → 풍림아파트
 - 변경후 : 풍림아파트 → 소래대교 → 소래포구(경유) → 대양빌라 → 풍림아파트
 - 변경 개시일자 : 10월 31일 ~ 11월 3일(협의중)
 - ▷택시승차장 설치
 - 위치 : 현재 시내버스(20번) 종점
 - 규모 : 1개소 50m (택시 10대 대기공간 조성)
 - ▷기타시설
 - 횡단보도 1개소 및 교통안전 노면표시 설치
 - ▷주차장관리운영
 - 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관리
 - 적용요금 : 최초 30분 1,000원, 이후 10분당 500원 (기존 소래대교 공영주차장 요금과 동일하게 적용)

문의 _ 시 교통관리과 (440-3903)

미추홀문화회관 겨울학기 강좌 안내

미추홀문화회관에서는 다양한 문화체험과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겨울학기 강좌를 마련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및 문화적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무료 기획 강좌’를 개설합니다.

- **접수기간** : 11월 1일(화) ~ 12월 10일(토)
- **강좌기간** : 12월 5일(월) ~ 2월 25일(토) (3개월)
- **장소** : 인천예총 미추홀문화회관 (구/인천여고)
- **대상** :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주부, 일반인, 직장인
- **〈즐겁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전문인 초청 무료 특강〉**
-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쉽게 돈버는 재테크
 - 일시 : 12월 9일·16일 오전 11시 ~ 오전 12시
- 피부미용 & 메이크업
 - 일시 : 12월 8일·15일 오전 11시 ~ 오전 12시

〈**무료 강좌 설명회**〉

- 어린이 글쓰기 & 논술에 관한 어머니 교실
 - : 11월 21일 (월) 오전 11시 ~ 오전 12시
- 학교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법 - 마인드맵 어머니 교실
 - : 11월 22일 (화) 오전 11시 ~ 오전 12시
- 자녀 영어 교육 특강 - 뮤지컬 잉글리쉬
 - : 11월 23일 (수) 오전 11시 ~ 오전 12시
- 창의력 100% 향상시키는 가베 자녀 교육 특강
 - : 11월 24일 (목) 오전 11시 ~ 오전 12시

〈**무료 특별 기획 강좌**〉

서예 교실, 문인화 등 17개 강좌

〈**겨울학기 강좌**〉

- ▷체험 기행, 방학특강
 1. 유리공예 체험 기행
 2. A+ 과학나라 체험기행
 3. 역사 체험기행 & 감상문 쓰기
- ▷방학특강 : 한지를 이용한 공예 등 13개 강좌
- ▷공예 : 칼라믹스, 에그아트 등 19개 강좌
- ▷미용 : 천연비누, 천연화장품
- ▷미술 : 수채화, 유화, 데생&스케치, 인물화, 홈스케치, 글씨교정 펜글씨, 예쁜 손글씨 POP, 페이스페인팅
- ▷무용 : 한국무용, 발레, 어린이재즈댄스, 어린이 댄스스포츠, 짜저싸이즈&나이트댄스, 인천향토 춤 사위
- ▷음악·국악 : 동요, 성악, 요들, 플롯, 기타교실, 바이올린, 클라리넷, 하모니카, 오카리나, 리코더, 풍물교실
- ▷어학·교양 : 일어회화, 중국어 회화, 니하오! 어린이 중국어 회화, 뮤지컬 잉글리쉬, 마술, 사진촬영교실, 수필창작
- ▷건강·스포츠 : 어린이 요가 & 성장 클리닉, 다이어트건강요가, 골프, 인라인 스케이트
- ▷창의력·학습 계발 : 프리벨 가베(은물), 하이파이 썸, 마인드맵, 책읽기와 논술교실, 동화구연, 유리드믹스, 즐거운놀이여행, 키즈사이언스, 레고 닥타, 모래놀이, 책 읽고 글쓰기, 스피치& 리더십 교실, 해리포터 마술교실, A+과학나라, 버그박사, 체스교실

문의 _ 미추홀문화회관 (765-0220, www.mchart.co.kr)

정치자금 기탁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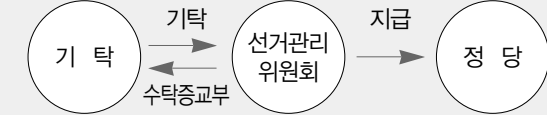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 **정치자금(기탁금)의 기탁취지**
 - 정치자금은 정당 또는 정치인이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필수불가결한 비용으로서 모금과 집행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립되게 됩니다.
 - 깨끗하고 올바른 정치 환경,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문화가 형성될 때 국가발전, 지역발전이 이루어지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것입니다.
- **기탁할 수 있는 금액**
 - 정치자금 기탁은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탁방법**
 - 기탁금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nec.go.kr)를 방문하여 기탁금시스템을 이용 온라인으로 기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ic.election.go.kr) 또는 인터넷 주소창에 ‘인천시선관위’를 방문하거나 홍보과(438-3873)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하겠습니다.

- **기탁금 배분·지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분기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배분·지급합니다.
 - 기탁금은 지급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부·지급합니다.

- **기탁 및 지급절차**



- **기탁금 기부시 세제혜택**
 - 기탁금을 기부한 자는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_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ic.election.go.kr)

제2회 인천 책 독후감 대회 공모

인천의제 21과 인천일보사는 인천책을 널리 알리고, 서가 30cm 설치 운동의 시민적 확산을 위한 대시민 '독서운동'의 일환으로 '인천책 독후감 공모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인천에 대한 학생과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널리 확산되길 원하며 보다 다양한 인천 책이 출간되는 촉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천에 대하여 아는 것은 바로 인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공모대회 요강〉

- 대상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 및 일반시민
- 일시 : 10월 10일(월) ~ 12월 17일(토) 접수
- 심사 : 각계의 전문가로 위촉 2005년 12월 하순
- 공모 분야 및 원고량
 - 지정공모(초등학생, 중학생) : 지정책자 4종, 200자 원고지 8매 내외
 - 자유공모(고등학생, 대학/일반부) : 인천에 관한 책이면 제한 없음, 원고량 제한 없음
- 지정공모 독후감 대상 서적
 - 학생부는 다음 4종의 책중 1종을 선정해 독후감 제출
 - 최근식, '온가족이 읽는 인천향토사' (우리교육)
 - 김중미, '깽이부리말 아이들' (창작과비평사)
 - 현 덕, '너하고 안 놀아' (창작과비평사)
 - 특별취재팀, '격동 한세기, 인천이야기' (도서출판 다인아트)
 - '인천 땅 새롭게 밟기' (도서출판 다인아트)
 - 대학·일반부는 인천에 관한 책이면 제한을 두지 않음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450-04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7 시티은행빌딩 8층 인천의제 21 사무실 인천 책 독후감 대회 담당자 앞(당일 소인분까지 유효)
 - 온 라인 : 홈페이지에 게시(<http://www.iagenda21.or.kr>) 전자메일 접수 : iagenda@hanmail.net
 - 유의사항 : 원고에 학생은 학교와 반, 연락처(집, 휴대전화, 전자메일)를 확실히 적어야 합니다. 일반시민은 연락처(집, 휴대전화, 전자메일)를 확실히 적어 주십시오.
- 발표 및 시상 계획
 - 발표는 2006년 1월 1일자 지역 일간지 및 인터넷, 개별통보
 - 시상은 2006년 1월중 시행 예정입니다.

- 시상내역 : 대상(2명) 상장 및 상금 50만원 / 금상(4명) 상장 및 각 20만원 / 은상(8명) 상장 및 각 10만원 / 동상(16명) 인천일보사 사장 상장 및 상금 또는 상품 / 인천의제 21 회장상(30명) 상장 및 상품 / 가작(50명 내외) 상장 및 상품 / 입선(50명 내외) 상장 및 상품

문의 _ 인천의제21 사무국 (440-1544)
인천책 30cm 서가운동본부 (010-3173-7925)

2005 청소년 진로탐색 엑스포

인천광역시 청소년종합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 진로탐색 엑스포'를 엽니다. 미래사회의 주인공 청소년들이 진학 및 취업과 관련된 실질적 정보와 자료를 한 장소에서 다양하게 접하고,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체험기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일시 : 11월 29일(화) ~ 12월 30일(수)
- 장소 : 시립도원체육관
- 주요행사
 1. 11월 29일(화)
 - 13:00~14:00 특강1 : 명사와의 대화
 - 15:00~16:00 전문가와의 만남1 (윤명순 대표-윤이미지테크) - 나에게 맞는 컬러선택과 이미지메이킹
 2. 11월 30일(수)
 - 10:00~11:00 특강2 : 김봉환 교수 (숙명여대 교육학과)
 - 13:00~14:00 전문가와의 만남2 (경향신문 언론인)
 - 15:00~16:00 전문가와의 만남3 (이보영-이보영언어연구소장)
 3. 12월 1일(목)
 - 10:00~11:00 특강3 : 백승한 실장 (유웨이 중앙교육평가실) - 2006년 대학입시 전략
- 본행사 : 진로탐색관, 진로정보관, 직업정보관
- 부대행사
 - 케익만들기, 벽화방문록, 코스프레, 매직풍선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명함만들기, 진로에니메이션상용, 실외이벤트, 캣테일제작시연, 인라인시범, 소원 나무 등
- 문의 _ 인천시청소년종합상담센터 (429-5562~3, www.inyouth.or.kr)



인터넷 신문(Incheon@news) 구독(무료) 신청하세요

인천광역시는 오프라인 신문의 친근감과 뉴스레터 형식의 간명함이 결합된 온라인 타블로이드판 인터넷 신문을 올해 5월에 창간하여 주2회(화·목) 발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참여형 인터넷 신문(Incheon@news)은 유용하고 다양한 정보를 재미있고 읽기 쉬운 형식으로 시민(독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배달되는 적극적인 정보서비스입니다. 현재 인터넷 신문(Incheon@news)은 700여명의 시민기자단이 활동하며 주변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으며 3만3천여명의 독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신문 구독 및 시민기자 가입신청 |

- 인천시 홈페이지 www.incheon.go.kr 회원가입시 인터넷신문 이메일링 서비스 선택
- 인터넷신문(ncheon@news) <http://enews.incheon.go.kr>에서 구독 및 시민기자 가입신청
- 인터넷신문(Incheon@news) 실시간 사이트에서 구독신청 <http://enews.incheon.go.kr/main/php/index.php>

문의 _ 인천광역시 인터넷신문 편집팀 (440-3286~8)



溫故知新



온고지신 - 옛것을 익히고 그것으로 새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모양은 “케익”이며, 그 맛과 내용물은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 삼국시대이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전통음식인 “떡”을 후손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떡케익전문기업 떡보의하루 “떡케익”
이전 떡케익으로 기쁨을 함께하세요!



예약주문이나 하루 전 주문하시면 인천, 부천 전 지역 무료배달드리며, 일반떡, 혼수떡, 돌, 백일, 답례떡등 예약하시면 제작하여 무료배달해드립니다.

문의전화 1544-1582